

朝鮮朝 漢文小說의 系譜研究

蘇 在 英*

- I. 序 論
- II. 漢文小說의 分類와 展開
 - 1. 假傳體小說
 - 2. 傳奇體小說
 - 3. 擬人體小說
 - 4. 夢遊類小說
 - 5. 艷情・道德小說
 - 6. 歷史・軍談小說
 - 7. 諷刺小說
 - 8. 傳記(傳)小說
- III. 結 論

I. 序 論

天台山人の 朝鮮小說史(1933)가 출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小說에 관한 研究者들이 여러 形態의 分類를 시도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漢文小說을 한글소설과 구분하여 분류・체계화한 논문은 거의 없다.¹⁾ 兩者의 분류를 굳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자에서 후자로, 후자에서 전자로 이행된 소설의 발달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분류작업이 꼭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文學의 시원이 한자였으며 漢文小說에서 한글소설로의 이행이 大宗을 이루고 있으니, 일단 한문소설을 정리・분류해보는 작업은 小說史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文璇奎교수는 일찌기 神怪小說(崔孤雲傳) 歷史小說(壬辰錄) 道德小說(心史) 艷情小說(周生傳) 別傳小說(桂旬傳) 義俠小說(三教指歸) 家庭小說(薔花紅蓮傳) 社會小說(兩班傳) 등으로 그 내용상 분류를 시도한 바 있으며,²⁾ 閔丙秀교수는 N.Frye의 소설이론을 원용, 神的類型(金鰲新話) 英雄的類型(林慶業傳) 指導者的類型(玉樓夢) 日常的類型(周生傳) 諧謔的類型(兩班傳) 등으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³⁾ 한편 黃溟江교수는 中國의 漢文小說과 韓國의 漢文小

* 文理科大學 國文科 副教授

1) 稗官小說, 傳奇小說, 軍談類, 童話・傳說類, 公案類, 奇逢・奇緣類, 社會類, 夢遊類, 勸懲類, 艷情類(金台俊・朝鮮小說史), 歷史小說, 家庭小說, 戀愛小說, 社會小說, 探偵小說, 怪奇小說(우리어문학회・國文學概論), 軍談小說, 艷情小說, 家庭小說, 道德小說, 運命小說, 社會小說, 寓話怪談小說(趙潤濟・國文學概說), 傳奇小說, 擬人小說, 道德小說, 歷史小說, 英雄小說, 理想小說, 家庭小說, 宮庭小說, 道術小說, 愛情小說, 諷刺小說(金起東・李朝時代小說論) 傳奇小說, 歷史小說, 說話小說, 夢幻小說, 家庭小說, 社會小說, 英雄小說, 艷情小說, 道德小說(丘仁煥・韓國文學新論)

2) 文璇奎, 漢文小說概觀(花史) 通文館, pp. 11~14

3) 閔丙秀, 漢文小說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 V), 고대 民族文化研究所, pp. 977~1062.

說로 양분하여, 전자는 金鰲新話에서 林悌·權鞞의 소설 夢字類 및 夢遊類 壬辰錄 林慶業傳 같은 역사소설을 모두 여기에 귀속시키고, 虎叱 등 燕岩의 作品들을 후자에 귀속시키고 있다.⁴⁾ 근간 韓國漢文小說全集에 의하면 夢幻類(玉樓夢) 歷史·英雄類(崔孤雲傳) 擬人·諷刺類(花史) 愛情·家庭類(周生傳) 筆記·野談類(東國拾遺)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⁵⁾

그러나 막상 이들 방대한 漢文小說 전체를 장르별로 구분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 또 主題別·內容別·形態別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該論에서는 漢文小說에 대한 전반적 편의를 전제로 하고, 주제·내용 중심으로 이를 종합 분류하여 ① 假傳體小說 ② 傳奇體小說 ③ 擬人體小說 ④ 夢遊類小說 ⑤ 艷情·道德小說 ⑥ 歷史·軍談小說 ⑦ 諷刺小說 ⑧ 傳記小說의 여덟 형태로 일단 上位分類를 해놓고, 이를 전제로 理論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이 중 ①과 ②는 우리 소설문학 발달과정에서의 연계성을 의식한 것이고, ③과 ④는 제재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식을 중요시한 것이며, ⑤와 ⑥은 구성상 내용 및 주제에 의한 것이며, ⑦은 특히 소설문학상 비중이 가장 큰 燕岩의 漢文小說史의 위치를 의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⑧은 實學時代를 구심점으로 作家들의 文集 속에 수록된 「傳」의 評價作業을 총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싶은 데 그 독립 분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II. 漢文小說의 分類와 展開

1. 假傳體小說

假傳體란 개별적 사물을 그 자체의 성격과 관련된 故事를 동원하고 필요한 虛構的 說明을 덧붙여 擬人化한 작품으로, 그 형식은 司馬遷의 史記(列傳)의 筆法을 원용하고 있으며, 唐代 韓愈의 毛穎傳이 嚆矢가 된다. 조동일교수는 假傳作品은 作品 外的 知識에 힘입어 이해될 수 있고 나타내는 事物의 特徵과 직접적으로 對應되면서 人生의 敎訓을 목적으로 씌어진 新興士大夫들의 人工的 非實用的 敎述장르라고 못박고 있다.⁶⁾ 假傳의 〈假〉는 사물에 假托해서 上政을 諷刺하고 戒世懲人의 목적을 諧謔的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물에 가탁하는 具體的 手法으로는 擬人法을 恒用하며, 사물은 대체로 文人 學者들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⁷⁾

麗末에 볼 수 있는 假傳으로는 林椿(1170경)의 麴醇傳과 孔方傳, 李奎報(1168~1241)의 麴先生傳과 淸江使者玄夫傳, 李穀(1298~1351)의 竹夫人傳, 李詹(1345~1405)의 楮生傳, 釋息

4) 黃濱江, 朝鮮王朝小說의 系統과 展開(朝鮮王朝小說研究), 韓國研究院, 1978

5) 林明德, 韓國漢文小說全集(中國文化學院大學 出版部), 1980, 권 12쪽

6) 趙東一, 假傳體의 장르規定(藏菴 池憲英先生回甲論叢), 1971, p. 333

7) 李延卓, 高麗假傳體研究(국어국문학 84집), 曹壽鶴, 假傳研究(語文學 29집), 1973 참고

影庵(1340경)의 丁侍者傳, 그리고 李允甫(1200경)의 無腸公子傳 釋 慧謀(1178~1234)의 竹尊者傳과 水道子傳등을 들 수 있다.

林椿의 麴醇傳은 假傳體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이 시기는 鄭仲夫亂을 중심한 武臣執權期로, 假傳體가 새로운 新興勢力의 文學 創造의 의지를 담고 나타난다. 작자인 西河 林椿이 정중부란 때 闔門遭禍하여 脫身僅免하였다는 그의 벗 李仁老가 祝髮以避亂하였다는 麗史 列傳의 기록으로 볼 때 이들 舊貴族이 新興士大夫의 文學 건설에 歷史的 先驅役을 맡은 것은 사실이다. 뒤이어 등장한 李奎報는 崔氏政權의 信任이 두터워 能文能吏의 능력을 발휘하여 士大夫의 새 理念을 文學思想으로 펼치고 있으며, 牧隱의 親父 李穀은 李齊賢과 더불어 編年綱目を 증수하기도 하고, 李詹은 朝鮮朝의 건국에 가담하여 新興士大夫文學의 傳統思想을 창조해 나간 인물들이다.

麴醇傳의 중심인물 醇은 그의 遠祖 牟(보리)가 后稷을 도와 麴姓을 下賜받으며 牟의 五世孫이 周 成王을 도왔으나 康王에 의해 금고되고, 魏初에 醇의 父 耐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며, 아들 醇은 陳 後主代에 口臭·錢癖으로 免官되어 병으로 죽고 族弟 淸이 仕唐하여 관직을 잇고 융성케 된다. 여기 陳 後主의 蕩淫을 그려 패망한 사실을 들어 戒世를 한다든지 醇이 口臭 免官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 懲人을 林椿의 생애와 전주어 볼 때 짙은 目的性(諷刺)을 지닌 작품임을 의식케 된다. 그러나 같은 술의 의인화인 李奎報의 麴先生傳에서 보면, 賤微한 몸으로 誠實한 행위에 의해 발탁되고 寵愛가 지나쳐 잘못을 저질렀지만 누우치고 나라를 위해 獻身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社會的 教化를 일삼고 있다. 주인공 麴聖의 祖 牟는 酒泉에서 집안을 일으켰으며 父 釐가 穀氏의 딸을娶하여 聖(麴先生)을 낳게 되며 王의 총애로 殿上에 오른다. 그의 세 아들 酷·醜·醜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방자하여 毛穎(붓)의 上疏로 벌을 받거나 죽게 되어 聖도 座廢爲庶人되나 그뒤 도적의 봉기로 聖이 再起用되어 벼슬에 오르지만 瘠渴病으로 歸老하여 天壽를 누린다.

두 작품의 〈史臣의 論評〉을 비교해 보면, 〈醇이 들병(挈瓶)의 지혜로 독들창(甕牖)에서 일어나 일찍 金甌의 뿔힘을 만나 술단지 도마에 서서 可를 들이고 否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王室이 迷亂하여 엎어져도 붙들지 못하고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 국순전과, 〈聖에 대한 총애가 극에 미쳐서는 거의 나라의 紀綱을 어지럽혀 禍가 미치나 晚節의 죽함을 알고 물러나 능히 天壽를 마칠 줄 알았다〉는 국선생전의 比較를 통해, 전자의 否定的 성격을 통한 政客과 君主에 대한 諷刺性이 두드러진 작품임에 비해, 후자의 肯定的 성격을 통한 社會的 模範性의 교훈은 좋은 건움이 되고 있다.⁸⁾

孔方傳에서 方의 父 泉(貨泉)은 周의 大宰였고 方은 위인이 밝은 등글고 안은 모나며 應變

8) 金鉉龍, 麴醇傳과 麴先生傳研究(국어국문학 65.66호)참고 1974, pp. 157~176

과 出仕를 잘하였으나 성격이 貪汚하고 節操가 없어 物價를 조작하고 貨泉을 중히 여겨 廢黜 되었으며, 아들 輪은 행실이 경박하여 賂物을 받다가 被誅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孔方傳은 돈(葉錢)의 제조 및 活用過程을 중국 사실에 假托하여 당시의 經濟狀態를 譏刺하고 있다.⁹⁾

李奎報의 淸江使者 玄夫傳은 거북(龜類)을 의인화하여 왕의 부름에도 俗儒輩와는 달리 오연히 불응하는 人間 修養의 敎訓性을 담고 있다. 玄夫는 召命에 불응하여 그 덕을 欽慕하여 黃金으로 鑄像한 바 되었다. 맏아들 元緒는 삶김(烹)을 당하고 둘째 元宇는 洞玄先生으로 역시 삶김(煮) 바 되었으며, 그 遺屬은 千歲에 이르도록 죽지 않아 玄衣督郵라 하였다. 여기서는 사람이 거북 잡아두는 것을 버슬주는 것으로 꾸미고 있으며, 거북占에 따라 처결하는 일을, 발탁된 玄夫에게 물어 국사를 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史臣論〉은 玄夫가 잘못하여 세상에 나아갔음을 지적하고 있다.

李穀의 竹夫人傳은 절개 곧은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당시 女性들의 烈思想 고취와 아울러 倫理觀을 깨우쳐 주고 있다. 篲의 아들 篲이 益母의 딸과 결혼하여 竹夫人을 낳았는데 宜男의 희롱에 절개를 지켜 松大夫와 결혼하게 되나 松公의 仙遊不返으로 절개를 지키다 枯渴病으로 죽는다. 史氏는 竹이 節을 지켜 세상의 칭찬을 샀으나 竹夫人은 君子를 짝하고도 後嗣가 없었음을 개탄하는데, 이는 崔寔의 竹尊者傳이나 丁壽崗의 抱節君節 李德懋의 管子虛傳에 이르면서 節介로 살아가는 竹의 擬人化過程을 통해 現實의 삶의 正道를 제시해 주고 있다.¹⁰⁾

李詹의 楮生傳은 종이(楮紙)를 의인화하여 그 用途에 따른 文士의 일생을 比喻 描寫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欺瞞·腐敗가 난무하는 당시 정치가에 대한 諷諫과 正道의 治를 권유하는 目的意識이 부각되어 있다. 蔡倫의 후에 楮生은 성품이 정결하고 文武와 交遊, 毛學士와도 契友다. 상이 萬字軍을 통솔하자 左尤冲의 成都賦 梁의 古文選 魏의 國史를 수찬, 唐代에는 貞觀之治에도 공헌이 컸으나 王安石에 直諫하였다가 배척된다. 이는 雙梅堂이 禡朝 때 忠諫하다가 流配된 자신의 自傳的 작품으로, 政治人의 直諫과 올바른 政治를 권유하는 目的性이 강하다.

한편 息影菴의 丁侍者傳은 지광이의 寓話文學으로, 麗末의 佛教 專橫으로 빚어진 社會相을 그린 작품인데, 부패하고 무능한 僧侶들을 모델로 불교 지도층에 대한 覺醒을 촉구 譏刺하고 있다. 丁侍者의 찾아온 연유를 息影庵이 물은즉, 包犧가 아비요 女媧가 어미인데 林中에 버려진 侍者가 范氏의 家臣이 되었다가 唐代에는 趙老의 門人이 되었다고 하고, 息影庵이 丁上座는 古聖의 남긴 몸으로 부릴 수 없으니 圃菴和尚에게 가라하여 왔다고 하였다.¹¹⁾

그밖에 成侃의 慵夫傳이 있어 慵夫(두꺼비?) 勤須子(부지런꾼)등이 나오지만 무엇의 의인

9) 金光淳, 韓國擬人文學의 史的 系譜와 性格(語文學 16집), p. 141

10) 拙稿, 李德懋의 管子虛傳(고대 國文學研究會월례 발표 원고) 1980.

11) 丁侍者를 「울챙이」라 하고 이 작품을 唯一한 動物의 擬人化라 보는 見解는 잘못이다.

화인지 확실치 않을 뿐 아니라 작품 자체도拙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李奎報와 동시대인으로 釋慧謙의 대(竹)를 의인화한 竹尊者傳과 얼음(氷)을 의인화한 氷道子傳이 曹溪詩集에 전하고 있으나 文學的 價値에서도 매우 뒤지는 작품이며, 게(蟹)를 의인화한 李允甫의 無腸公子傳이 있었다고 하나 失傳되었다.

12세기 이래 新興士大夫의 출현으로 사물의 의미와 인생의 교훈을 함께 추구하는 이 叙事的 장르가 태어나게 되나, 假傳의 人工性和 非實用性이 차츰 性理學의 발달과 더불어 歌辭나 夢遊錄같은 自然的 장르로 移行되며, 心性의 발달과 더불어 麴醇傳이나 麴先生傳이 다루던 술의 媒體가 차츰 愁城誌나 天君小說에 이어져 意識에의 擴散作用을 낳기에 이른다.¹²⁾

어쨌든 事物을 의인화한 假傳의 筆法은 戒世懲人과 勸懲思想의 고취를 목적으로 창작되었으며, 이들이 이전의 說話文學 내지 稗官文學과 이후의 본격적 小說文學을 연결하는 過渡的 形態의 성격을 지녔음은 注目할만하다.¹³⁾

2. 傳奇小說

傳奇란 원래 〈奇를 傳한다〉는 뜻으로 중국에서는 六朝時代의 志怪에 대하여 唐代의 個人的 創作을 두고 일컫던 말이었다. 그래서 文學史家들은 이를 「神怪」「劍俠英雄」「艷情戀愛」「別傳」등으로 나누었으며, 제재는 주로 超現實的 에피소드로서 그 가치는 이야기의 構成이나 興味에서 발휘되었다. (傳은 人物중심이나 傳奇는 事件중심이다) 우리의 傳奇小說은 넓은 의미에서 幻想의 世界가 등장하고 진기하거나 경이로운 사건이 풍부한 소설, 또는 非現實的 武勇譚이나 戀愛譚을 지닌 小說로, 西歐文學에서의 로망스의 概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現實的 人間生活을 떠나 天上·冥府·龍宮등에서 전개되는 奇異事件을 다루어 왔으며 金鰲新話 遺篇이 그 대표적 작품이다. 王郎返魂傳 三說記 金牛太子傳등도 여기 포함된다.

金時習(1435~1493)의 金鰲新話는 우리 傳奇文學의 白眉作品으로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남아 있는 短篇으로는 萬福寺樛蒲記 李生窺牆傳 醉遊浮碧亭記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의 다섯 편이 있을 뿐 원래 이 단편집의 윤곽은 알 길이 없다. 다만 梅月堂이 著述을 石室에 묻어두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했다는 사실과,¹⁴⁾ 卷末에 〈書甲集後〉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乙·丙集도 있었으리라 추단이 可能해지며, 文體面에서 보면 雲英傳이나 夢遊系作品들과도 相似點을 지니고 있어 傳奇의 特色을 짐작케 한다.

萬福寺樛蒲記는 南原 老總角 梁生이 부처님과 樛蒲놀이 내기를 하여 倭寇에 죽은 처녀의

12) 趙東一, 前掲論文 참조

13) 國譯 東文選 VIII(제100.101권) 〈傳〉民族文化推進會, 1969, 참조. 중국에서는 「傳」을 「史傳」「家傳」「托傳」「假傳」으로 분류하고 「가전」은 작자의 의도적 허구로서 寓言의 素材를 의인화한 것이라 하였다. 徐師曾, 文體明辨序說(臺灣 長安出版社) 참고

14) 「入金鰲山著書藏石室 曰後世必有知岬者」(金安老·龍泉談寂記)

幻身을 만나 사랑을 속삭인 內容이다. 여기 梁生은 現實人이나 그가 交歡한 女人은 非現實的 靈魂이다. 開寧洞의 歡樂이나 女人의 大祥行列을 만나 說盡한 內容들을 살펴보면 幽明의 갈림길에서 離別의 情懷가 曲盡히 설화되어 있다. 女人은 梁生의 薦拔을 입어 他國의 男性으로 환생하고 梁生은 淨業을 닦아 同脫輪廻하는 後日譚에 이르기까지 纏綿한 情의 흐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李生窺牆傳 역시 艷情傳奇로서, 開京의 李生과 崔小姐의 戀愛譚인데 後半에 가서는 李生이 紅巾賊亂 때 죽은 아내(崔娘)의 幻身을 다시 만나 애정생활을 이어가다가 헤어진다는 구성이다. 작자가 늦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실과 梅月堂集의 「與善行鬪楊蒲戲題」에서 보면 萬福寺楊蒲記는 작자의 生涯와 흡사한 自叙傳的 作品이라 볼 수 있으며, 父親에게 抗命하면서까지 佳緣을 성취시키는 李生과 崔娘의 〈樂而不淫 哀而不傷〉을 그린 李生窺牆傳에서는 이미 自由戀愛思想의 萌芽를 엿볼 수 있다.¹⁵⁾ 醉遊浮碧亭記는 開京 洪生이 平壤으로 장사나 갔다가 浮碧樓에 올라 죽어 仙女로 환신한 箕氏女를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인 이야기이다. 金時習의 자취가 關西 방방곡곡에 미치고 있음은 그의 詩〈遊關西錄〉을 통해 짐작할 수 있거니와, 女人이 〈殷王之 後裔요 箕氏의 딸인데 先考가 匹夫의 손에 죽자 宗社를 잃고 衛滿이 寶位를 도적질한 후 朝鮮之業이 墜落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보면 은연 중 端宗 失位와 世祖 篡奪을 역사적으로 풍자한 것이라 짐작되니, 이는 그의 지난날의 感懷와 당대의 슬픈 현실을 몽둥그려 空想化한 것이라 하겠다. 南炎浮洲志는 迷信과 佛道를 배척하는 慶州 朴生이 夢中에 저승에 가 閻羅大王과 討論하고 돌아온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작자의 宇宙觀을 披瀝한 작품으로 그의 世界觀과 哲學的 蘊奧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당시 政治의 腐敗相과 惑世誣民의 宗教的 죄악이 풍자되고 있어 思想의 깊이를 듬뿍 느끼게 한다. 더우기 猨라왕이 禪位文을 지어 朴生에게 王位를 선양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자의 평소 現實에서 疏外된 意識이 相對的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生이 지은 〈一論文〉에서 보면 陰陽五行說 理氣說 三綱五倫의 儒學思想이 達觀되어 있다. 마지막 龍宮赴宴錄은 開京 韓生이 꿈에 龍王之 招待를 받고 龍宮에 들어가 용녀의 결혼을 위해 마련한 佳會閣 上梁文을 지어주고 용궁의 건설 儀器를 구경하고 돌아온 구성이다. 이는 작자의 幼時 追憶의 형상화로, 龍宮은 궁궐, 龍神은 世宗, 龍女는 世子世孫, 神奇한 기구들은 世宗이 창조한 科學器具를 말하는등 幼時 入關의 幻想的 사실이 作品化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 작품의 결말 「入智異山採藥 不知所終」(萬) 「生得病數月而卒 聞者莫不傷歎」(李) 「殯之數日 顏色不變」(醉) 「其將化之夕 夢神人告於四鄰」(南) 「生不以利名爲懷 入名山不知所終」(龍)에서 보듯이, 主人公의 生涯의 마침을 알 수 없다른지, 겪은 일들의 근심으로 죽어 원한된 결과를 남긴다는등의 共通性 역시 당시 傳奇小說의 特色(結尾法)으로 열거할만 하다.¹⁶⁾

15) 金一烈, 金鰲新話考察(朝鮮前期의 言語와 文學), 韓國語文學會, 1976.

16) 梅月堂外集, 金鰲新話(梅月堂全集), 成大大東文化研究所, 참고.

한편 金安老의 지적대로 金鰲新話가 剪燈新話(明瞿佑)를 模倣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先覺들의 엄밀한 比較的 考察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背景으로 設人하고 있다는 점, 인간성을 긍정하고 현실주의적 운명관을 표출하고 있다는 공통성으로 미루어 金時習의 創意는 매우 높게 평가할만 하다.¹⁷⁾ 아울러 이 금오신화는 소설의 발달 단계에서 稗官說話 및 假傳體를 계승하여 小說의 本格的 文學樣式을 확립시켰고, 그후 中國小說의 수입과 野談·民譚등에 의해 기반을 점차 굳혀나가 소설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시습이 이처럼 文學性질은 漢文小說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작자 자신이 한문학에 조예가 있었다는 점과 그를 둘러싼 당시의 悲劇的 現實이 그같은 作品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自我와 世界의 對立場이 바로 소설 발생의 근원이라 했듯이, 김시습은 자신의 불안스럽고 번뇌스런 현실에서 이와 대조되는 만족스럽고 번뇌없는 비현실세계를 置換함으로써 心理的 報償을 획득하려한 것에 틀림없다.¹⁸⁾

王郎返魂傳은 明宗 때 普雨(1515~1565)가 自身의 念佛行을 고취하는 布敎의 一方法으로 직접 漢文으로 짓고 또 동시에 국문으로 읊었다고 하는 短篇이다.¹⁹⁾ 철저히 佛敎를 배척하던 주인공 王思机는 십년 전 죽은 아내 宋氏가 꿈에 나타나 지시하는대로 佛像을 배설하고 佛法을 믿은 덕분에 閻羅大王에게 잡혀갈뻔한 화를 면한다. 猨왕은 宋氏를 人世로 되살려 보내어 다시 王郎과의 夫婦의 연을 잇게하려 하나 그의 혼을 의탁할 육체가 없으므로 갖죽은 月氏國翁主의 몸을 빌어 還生, 부부의 인연을 계속하다가 다시 극락세계로 돌아갔다는 줄거리다. 이 작품은 원래 庶民敎化를 위한 포교적 목적으로 지어졌으므로 종교소설 본연의 思想的 深奧性은 사실상 도의시되고 있으나 漢文小說이 國文小說로 移行된 과정을 잘 보여준다. 현존 필사본 중 가장 오래 것은 華嚴寺本으로 勸念要錄에 수록되어 있고 인조 15년(1637)에 木板으로 간행된 바 있다. 소설사적으로는 전대의 金鰲新話를 이어받아 林悌의 花史나 權輶의 周生傳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²⁰⁾

金牛太子傳은 金犢傳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天台山人은 이를 佛典 地行錄의 불교설화를 抄譯한 것으로 보았다. 근원은 漢文本이며, 이렇게 볼 때 安樂國太子傳 目連傳 善友太子傳등이 모두 佛經說話의 번역 과정에서 생겨난 작품들이다.²¹⁾ 단편집 三說記도 지금은 국문본으로 전하고 있으나 원래는 漢文說話의 번역을 통해 이룩된 傳奇物임에 틀림없다.

傳奇小說은 일찌기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많이 읽혀진 太平廣記나 剪燈新話등 중국 영향을

17) 李在秀, 金鰲新話考(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朴辰義, 比較文學의 見地에서 본 金鰲新話와 剪燈新話(高大文理論集 3집), 韓榮煥,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構成比較研究(開文社), 참고.

18) 趙東一, 小說의 成立과 初期小說의 類型的 特徵(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77. 여기는 萬福寺攄蒲記 李生寢牆傳을 冥婚小說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을 夢遊小說 醉遊浮碧亭記는 두 성격을 아울러 지닌 作品으로 보았다.

19) 黃溟江, 懶庵普雨와 王郎返魂傳(韓國敎事文學研究), 檀大出版部, 1972.

20) 黃溟江, 韓國古代敎事文學의 Archetype(韓國敎事文學研究), p. 35

21) 史在東, 佛敎系 國文小說의 形成過程 研究(亞細亞文化社), 1977.

크게 받아 발달을 본 장르다. 金鰲新話가 그 대표적 작품이고 王郎返魂傳은 信佛 目的으로 창작·번역된 작품이며, 金牛太子傳처럼 불경실화의 번역을 통해 한글소설 발달의 계기를 형성해 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3. 擬人體小說

擬人(personification)이란 無生物에 생명을 부여하고 動植物에 言語를 부여하여 인격화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麗末의 假傳體도 여기 포함되나, 본항에서는 朝鮮朝의 작품들에 한정하였으며, 植物·心性·動物의 擬人化로 三分類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① 植物을 擬人化한 작품

植物을 의인화한 작품으로는 花史 花王傳 抱節君傳이 대표적이다. 林悌(1549~1587)의 花史는 꽃나라의 역사이면서 인간 삶의 역사다. 花史가 薛聰의 花王戒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당시 神文王을 諷諫하고 있다는 점이나 薔薇 白頭翁등 꽃을 의인화한 技法面에선 花史의 方法과 指向點이 같다.²²⁾ 花史는 春夏秋 三季節에 피는 꽃 가운데 梅花 牡丹 芙蓉을 각각 君王으로 삼고 때마다 피고 지는 花草木과 그 세계를 國家 臣下 人民으로 삼아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梅花가 왕된 나라는 陶, 牡丹의 나라는 夏, 芙蓉의 나라는 唐이다. 陶烈王은 善政을 베풀었으나 王弟 英王이 승계한 후로는 충신 烏筠을 내치고 간신 李玉衡을 승상으로 삼고 총비 楊貴人을 왕비로 맞았다가 匈奴의 침략으로 망하게 된다. 姚黃(牡丹)을 맞아 文王을 삼고 夏를 일으켜 金帶圍(芍藥)로 승상을 삼아 국운이 융성하나, 또다시 黨爭에 휘말려 忠諫을 듣지 않고 享樂生活을 누리다가 멸망하고 만다. 그후 白蓮을 영립하여 明王을 삼고 唐을 세우지만 공신 馬蓼의 권유로 왕이 信佛에 탐닉했다가 또다시 亡國의 悲運을 맞는다. 陶 夏 唐의 멸망은 君王이 忠諫을 멀리하고 참언에 빠져 간신을 가까이함에 있으며, 또한 국왕이 美妃에 탐닉하여 國政을 소홀히 하다가 邊賊의 침입을 받아 敗亡을 가져온다. 이러한 구성은 작자 당시 宣祖 이래의 東西黨爭과 烏筠 金帶圍같은 忠臣을 멀리했던 當代社會의 現實諷刺란 점에서 작품의 가치성이 높게 평가된다.²³⁾ 특히 <黨禍의 폐가 逆亂보다 크고 黨派를 타파하는 것이 賊을 制裁하기보다 어렵다>고 한 <史臣曰>의 紅白黨 斷案은 당시 色論의 膺懲과 黨禍에의 분격이 얼마나 컸으며 黨爭 타파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였는가를 여실히 말해준다.²⁴⁾

李頤淳(1754~1832)의 花王傳은 花史를 模倣한 흔적이 길다. 花王(姚黃)은 輔弼之臣으로 芍

22) 花史는 盧兢 혹은 南聖重의 作說이 있으나 林悌의 作品임에 틀림없다. 拙稿, 白湖 林悌研究(民族文化研究 8집), 1974, 「花史條」 p. 104 참고.

23) 文璣奎역, 花史(通文館) 1961, 「解說」 참고.

24) 拙稿, 白湖 林悌研究(民族文化研究 8집) 1974, p. 106 참고.

藥을 추천받고 그가 다시 梅 竹 菊을 천거 받아 그들을 맞이하나 국화만이 不服한다. 그후 花王은 芝草 蘭草등 天下 名流를 맞아 좌우에 두고 海棠花로 美姬를 삼고 忠諫을 무릅쓰고 行樂을 일삼다가 敗亡한다. 芍藥은 花王과 함께 죽고 竹은 절개를 지켰으나 梅花는 버림을 받고 菊花만이 초연히 환란을 면한다. 李頤淳은 松, 菊, 梅, 竹, 蓮에 己(自己)를 포함시켜 六友堂 또는 <杞隱>이라 일컫은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花史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암시받게 된다.²⁵⁾

月軒 丁壽崗(1454~1527)의 抱節君傳은 대나무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天君傳이나 愁城誌보다 百餘年이나 앞선다. 抱節君(孤竹君의 爵號)은 篁(竹叢)을 선조로 首陽山에 살았는데 十八公(松의 破字)과 規方 外의 친구가 되려고 徂徠山에 이주하려다 淇澳에 이르러 살게 된다. 그후 黑帝(겨울신)·東君(봄의 신)이 時候를 相爭할제 孤竹君이 절개를 지키며 상이 抱節君으로 賜號하게 된다. 史臣의 論評에서 <빠르고 센 바람에 굳센 풀을 알 수 있고 어지러운 세상이라야 忠臣을 알 수 있다>고²⁶⁾ 한 말은 곧 당시 燕山君의 부패한 정치로 관직을 버리고 은퇴한 月軒 자신의 자서적 풍자임에 틀림없다. 戊午史禍, 己卯土禍 때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자 거듭된 그의 辭官은 곧 抱節君으로 假傳된 節義의 군셈을 象徵한 것이라 일컬을만 하다.²⁷⁾

대(竹)를 의인화한 작품으로는 이미 曹溪詩集에 보인 崔寔(慧謚)의 竹尊者傳이 있으며,²⁸⁾ 東文選 소재의 竹夫人傳(李穀)이 있다. 抱節君의 아들 此君은 竹尊者傳에선 그의 號가 되어 있다. 竹夫人傳에서는 十八公이 竹夫人을 아내로 맞아 남편이 죽자 節婦가 되어 後嗣를 얻지 못한다.

李德懋(1741~1793)의 管子虛傳에서 子虛는 孤竹君의 아들로 태어나 生成翁의 천거로 崋(傲雪大夫)과 國華(凌霜處士)와 함께 皇帝에게 천거되어 忠孝의 師表가 되며, 그가 蠱心病으로 죽기까지 붓(筆), 화살(箭), 통소(簫), 제기(籩), 죽간(簡), 낚싯대(竿), 지팡이(筇), 발(簾) 여덟 아들과 鄆春縣夫人(부채)의 외딸을 두는데, 한층 寫實的 描寫에 접근하고 있다.²⁹⁾

② 心性을 擬人化한 作品

心性을 의인화한 작품으로는 天君傳 愁城誌 天君演義 天君本紀 天君實錄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 天君을 주인공으로 삼고 忠臣型 奸臣型으로 對照된 성격들이 相互 葛藤을 빚으면서 構成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金宇頤(1540~1603)의 天君傳은 天君系의 근원이 되는 작품으로 東岡集에 의하면 작자

25) 李頤淳, 後溪文集(初刊本) 卷 6 참조

26) 「疾風知勁草 世亂識忠臣」(月軒集 卷 3 抱節君傳)

27) 金光淳, 抱節君傳에 대하여 (語文學 23집) 韓國語文學會, 1970, pp. 61~91.

28) 朴魯春, 竹尊者傳(崇田語文學 1집) 崇田大 國文科 1972, p. 201.

29) 李德懋, 靑莊館全書, 嬰處文稿, 卷 4, 傳(管子虛傳)

27세(1566)의 작으로 되어 있다.³⁰⁾ 지금까지 愁城誌를 天君小說의 호시로 본 견해(1578)에 견주어 보면 12년이나 앞선다.³¹⁾ 또 南冥先生이 일찌기 神明舍圖를 찬하고 이를 참고로 天君傳을 짓게 하였다하니 <神明舍圖>가 天君傳을 지은 직접 동기가 되었음도 알 수 있다. 有人國 乾元帝의 아들들 天君이라 하고, 충신형으로 大宰 敬 百揆 義 公子 良 大將軍 克己, 간신형으로 公子 懈 公孫 傲 妖賊 華督 柳跖이 등장, 간신의 작당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나 끝내 天君이 位를 가로막고 殘黨을 소탕하여 平靖을 회복한다. 이는 결국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려면 敬義思想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君자의 心法을 주장한 것으로, 治國의 방법이 治心의 방법과 一致함을 보이고 있다.

林梯의 愁城誌는 創作 技法面에서 天君傳을 능가한다. 충직형으로는 主人翁 無極翁 翹襄將軍이 등장하며 간신형으로는 陶泓 毛穎 陳玄, 愁城을 이룬 忠義, 壯烈, 無辜의 生離別 冤魂들이 등장한다. 天君傳의 天君은 天上界 人物이나 愁城誌의 天君은 즉위 후 愁城에 싸였다가 翹將軍에 의해 구제되어 다시 지위를 회복하는 地上界의 天君인 점이 다르다. 수성지에서 愁城의 적을 討伐하는 翹襄將軍의 활약상은 李奎報의 翹先生傳에서 翹聖이 술의 장점을 취재하여 국정에 도움을 주는 분별있는 인물로 의인화된 내용과 닮고 있으나 現實의 諷刺를 하면서도 솔로써 근심을 몰아내는 翹襄의 功臣化 과정이 큰 차이를 보여준다.

鄭泰齊(1612~1669)의 天君演義는 天君傳에 비할 수 없을만큼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더 한층 複雜化한 葛藤構造를 보여준다. 惺惺翁 主人翁 誠意伯등의 인물과 文房四友(毛穎, 陳玄, 褚知白, 陶泓) 越白(妖女) 歡伯(술)등의 대조되는 성격들을 통하여 갈등구조가 복잡화되어 있으나 골격은 天君傳을 그대로 도습하고 있다.

鄭琦和(1786~1840)의 天君本紀는 일명 心史라고도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三十而立이라 한 孔子의 말을 引用하여 마음 속의 갈등을 작품화하고 있다. 回章體로 된 이 작품은 年條마다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고 史筆體로 史臣의 論評을 添記하고 있어 花史의 체를 모방한 느낌이며, 思想的으로도 權近의 入學圖說 退溪의 心統性情圖등 성리학의 心性論에서 직접 영향 받음이 크다고 하겠다.

柳致球(1793~1854)의 天君實錄은 <옛날 金宇顛이 天君傳을 짓고 上舍 石嶽公이 軀書를 편찬하였는데 이를 절충하여 天君實錄을 엮는다>고 한 水西集 跋文이 創作 動機를 잘 말해준다. 이 작품은 天君傳의 에피소우드를 부연하고 軀書의 등장인물들을 借用하여 天君系小說로 模作되고 있다.³²⁾

비록 標題에서 天君의 명칭은 쓰지 않았으나 愁城誌의 저자 林梯의 傍孫이 되는 林泳(1649~

30)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 105.

31) 「嘉靖 四十五年 丙寅 先生 二十七歲作天君傳 南明先生嘗撰神明舍圖 命先生作是傳」(東岡集 卷八, 東岡先生 年譜)

32) 「昔東岡金先生 著天君傳 族先祖上舍 石嶽公編軀書 而書涉太煩 乃參互折衷 哀成一通」(水西集 卷五 天君實錄 跋)

1696)의 義勝記는 작자 若冠의 창작(1664·顯宗 5)으로, 역시 天君을 주인공으로 삼고 惺惺翁과 盜賊등 忠奸巨擘의 對立, 葛藤을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 族祖 白湖의 創意를 滄溪가 모방 도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英·正代의 작가 李鈺의 南靈傳(梅花外史) 역시 天君 및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보아 天君系小說로 論議되어야 마땅하다.

天君系小說이 모두 心統 性情의 논리에 따라 心經正學을 주장하며 亂臣賊子 討平을 모두 心內部 要素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독 愁城誌만은 麴襄將軍(술)의 愁城 攻擊(外的 勢力)으로 하여 天君의 나라가 和平을 되찾는 특이한 구성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南靈將軍(담배)의 개입으로 和平을 되찾는 南靈傳의 技法과 一致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가 愁心을 내쫓을 수 있다는 肯定的 意圖面에서도 一致點이 엿보인다.

근 10여권에 이르는 天君系小說을 史的으로 檢討해 보면, 그 근원은 이미 麗代 假傳體에 소급되며 그후 南冥의 神明舍圖나 權近의 入學圖說 程林隱의 心統性情圖 등에서 心性論의 사상적 근원을 빌어와 明宗代에 金宇顒의 天君傳이 지어 졌으며 그 뒤를 이어 愁城誌 天君演義 등 心性의 의인화 작품이 창작되었다. 더욱이 당시까지만 해도 賤視되던 作家層이, 儒學者들의 形而上學的 心性小說 창작과 관심으로 말미암아 小說과 儒學思想의 거리를 좁히고 儒者들도 소설을 짓고 읽을 명분을 부여해 주었다는 점에서 心性小說의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林梯의 愁城誌나 鄭泰齊의 天君演義는 구성면에서도 價値를 높게 평가받을 만한 代表的 作品이다.

③ 動物을 擬人化한 作品

動物을 의인화한 대표적 漢文作品으로는 鼠大州傳 鼠獄記 蛙蛇獄案 鵲烏相訟 郭索傳 烏圓傳 등을 들 수 있다.

鼠大州傳의 鼠大州는 先天的 懶怠에다 오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群鼠들을 모아 鼯南州의 精粟을 훔쳐오게 한다. 이에 鼯南州가 主倅에게 고발하나 鼠大州의 巧言利說로 방면되고 무죄한 타남주가 오히려 誣告罪로 定配당하게 된다. 여기서 보면 善人型 鼯南州는 巧邪한 惡人型 鼠大州와 대조적 입장에서 성격이 묘사되어 있다. 主倅(판관)의 그릇된 판결을 통하여 당시 爲政者들의 不正·腐敗가 辛辣히 공격된다. 그런데 국문본 鼠同知傳에서 보면 鼠大州가 判官(山君白虎)까지 감동시킨 善人型 人物임에 비해 다람쥐는 恩惠를 배신하는 奸惡한 人間型으로 대조되고 있어, 漢文本 鼠大州傳과는 인물도 對照의이지만 다람쥐에의 背恩을 통한 인간성 규탄과 판관의 부패를 통한 社會 諷刺가 대조되고 있는 것 또한 흥미로운 견증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양 작품의 先後나 相關性은 가릴 수 없으나 相異한 작가에 의해 창작된 사실만은 認知될 수 있다.³³⁾

33) 金光淳, 鼠의 擬人類小說의 相互關係(李在秀박사 還曆紀念論文集) 1972, pp. 93~108.

한편 鼠獄記는 倉穀을 먹던 쥐가 倉神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후로는 倉庫의 곡식이 소모되지 않았다고 하는 단순 플롯으로 되어 있다. 倉神의 국문에도 自白을 하지 않자 五刑을 갖추고 혹독한 刑問을 하자 鼠賊이 진술을 자청, 모든 동물의 奸邪함을 이르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자 倉神은 이를 上帝께 고하고 鼠賊을 베고 鼠族을 죽여 穀食의 消耗를 막는다고 하였다. 鼠獄記는 앞 작품과 견주어 볼 때 전혀 계통이 다르다. 그러나 앞 鼠大州傳이 鼠同知傳보다 內容이 進歩的이고, 鼠大州傳의 구성이 졸렬하며 왕왕 우리말을 直譯한 吏讀文式이라 생각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보면 애당초 국문본을 底本으로 삼아 이를 換骨奪胎한 것이 漢文本 鼠大州傳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³⁴⁾

蛙蛇獄案은 개구리(白介骨)가 올챙이(兀昌)를 살해한 범인으로 뱀(大蟒)을 告訴하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고 있으며 鵲烏相訟은 까치(諫治)가 까마귀(加磨恠)에게 새끼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호소하여 이에 대해 까마귀가 부당하다고 맞고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⁵⁾

權輶(1569~1612)의 石洲集에는 게(蟹)를 의인화한 郭索傳이 전하는데, 이는 이미 그 연원을 麗代 李允甫의 無腸公子傳에 두고 있으며³⁶⁾ 冷齋 柳得恭의 아들 柳本學(1770)의 問菴文藻에 보이는 烏圓傳은 고양이의 움츠린 모습을³⁷⁾ 哲宗代 黃玪(1855~1910)의 金衣公子傳은 괴짜리를 의인화하고 있어 그후 動物 擬人化의 多樣한 발전적 변모를 엿볼 수 있다.³⁸⁾

4. 夢遊類小說

夢遊類 作品들은 우리 文學의 한 主要 장르를 이룬다. 이들 대부분의 작품들은 現實에서 이루지 못한 願望과 理想을 형상화하였거나 現實을 批判 내지 풍자하는 消極文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傳奇小說의 非現實의 성격과 계맥이 이어진다.

크게 두 부류로 分類할 수 있으니, 이른바 夢遊錄 계통과 夢字類 계통이 그것이다.

① 夢遊錄 系統

夢遊錄 계통의 작품으로는 元生夢遊錄(林悌) 大觀齋夢遊錄(沈義) 達川夢遊錄(尹繼善) 皮生冥夢錄 江都夢遊錄 金華寺夢遊錄 泗水夢遊錄(文成宮夢遊錄) 天宮夢遊錄 浮碧夢遊錄 安憑夢遊錄의 열 편을 들 수 있다. 이중 泗水夢遊錄 天宮夢遊錄만이 지금 한글로 전하나 이 역시 文體로 보아 藍本은 漢文本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土類들이었을 作者階層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夢遊錄은 客觀的 사실에의 관심과 작가의 주관적 理想 또는 意志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34) 文彙奎, 鼠大州傳 解說(花史·周生傳·鼠大州傳), 通文館 참고

35) 大谷森繁, 鍾玉傳 解題 및 影印「蛙蛇獄案」[鵲烏相訟文](朝鮮學報 54집), 朝鮮學會

36) 權輶, 石洲集, 卷三, 郭索傳

37) 柳本學, 問菴文藻, 卷上, 烏圓傳

38) 黃玪全集, 卷上(亞細亞文化社刊)「金衣公子傳」

함께 표현하고 있어, 결국 이 두 對立의 意識의 衝動 속에서 夢유록이 창작되었을 것이다.

기록상으로 확인된 夢遊錄의 작가는 沈義 林悌 尹繼善 셋 뿐이다. 沈義(1475~?)는 中宗 때 改革에 앞장선 趙光祖의 일파를 독살시킨 乙卯士禍의 主役 沈貞의 동생이다. 沈義는 공신의 親弟였지만 당시의 타락한 정치윤리에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으므로 士林으로부터 疏外된 생활을 해왔다. 大觀齋夢遊錄이 씌어진 1529년(中宗 24)은 정치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므로 沈義는 극도의 좌절과 불안 속에서 사회를 한탄하며 지내야 했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과 완전히 相反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그의 작품은 작가가 체험한 역사적 좌절과 모순에 대한 反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다. 즉 작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否定的 現實을 뒤엎고 자신의 理想을 실현할 수 있는 體驗이었을 것이다. 大觀齋夢遊錄은 하나의 理想鄉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³⁹⁾ 鄭學城은 泗水夢遊錄과 金華寺夢遊錄을 大觀齋夢遊錄의 모작으로 보고 〈理念提示型〉이라 보고 있으며, 徐大錫은 大觀齋夢遊錄과 夢決楚漢訟(諸馬武傳)을 夢유자가 夢중에서 직접 주인공 역을 맡는다하여 〈主人公型〉이라 하고, 車溶柱는 大觀齋夢遊錄과 泗水夢遊錄을 〈理想型〉으로 분류하고 있다.⁴⁰⁾

大觀齋夢遊錄에는 崔致遠 乙支文德을 정점으로 당시 官僚社會에 크게 공헌한 麗末 鮮初의 名文章들과 그들의 창조적 전통에 대한 신뢰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현실의 權力王國에 반해 우리 역대의 文章家들을 총동원하여 文章王國을 건설하고 있다. 이를 보면 沈義의 당시 權力王國에의 嫌惡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⁴¹⁾

大觀齋夢遊錄이 우리 文人들의 夢中王國을 건설한 작품이라면 泗水夢遊錄은 中國 儒學者들의 이상적 夢中王國을 표현한 작품으로 對照를 이룬다. 孔子를 위시한 그 제자들과 孟子 程朱 등 유학자로 이룩된 封建 官僚國으로 鄭夢周를 비롯한 東方九賢도 이곳에 합세하여 楊墨, 老莊軍이 격퇴되기도 한다. 이는 17, 8세기 在野士林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무렵 급격히 증가된 書院, 祠宇의 팽창을 배경으로 이 작품이 표현했을 가능성을 示唆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 중심의 이상국 침공자가 격퇴되는 구성법은 유학의 우수성을 과시한 의미로 해석되며, 역사상 霸道の 帝王이 叱責당하는 것을 통해 儒教哲學의 우수성을 제시해 보여 주고 있다.⁴²⁾

金華寺夢遊錄은 夢유자가 夢유세계에 개입함이 없이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 〈傍觀者型〉(서대석), 理想 표방의 王國 設定이나 현실적 社會問題에 대한 批判意識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여 浮碧夢遊錄 安憑夢遊錄과 함께 寓意型(차용주)으로 다루기도 한다. 중국 역대의

39) 鄭學城, 夢遊錄의 歷史意識과 類型的 特質(冠岳語文研究 2집), 1977.

40) 鄭學城, 上揭論文 p. 279 〈理念提示型〉〈現實批判型〉. 徐大錫, 夢遊錄의 장르적 性格과 文學史的 意義(韓國學論集 3집) 1975, 〈傍觀者型〉〈參與者型〉〈主人公型〉. 車溶柱, 夢遊錄系構造의 分析의 研究(和學社), 1979. 〈理想型〉〈寓意型〉〈悲憤型〉〈批判型〉

41) 閔丙秀, 夢遊錄系作品(漢文小說篇), 韓國文化史大系 V, p. 1026.

42) 金起東, 泗水夢遊錄(李朝時代 小說의 研究), 成文閣 1974.

創業主들과 공신들이 모여 宴會하는 狀況을 통하여 中華民族의 理想을 표현하고 있다. 漢高祖는 王道를 펴 正統 創業主가 되나 楚霸王은 패도를 펴 創主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자가 추구하는 理想郷도 없고 人物, 主題面에서도 새로운 작자의 가치관이 부각되지 못한 模作이다.

浮碧夢遊錄은 몽유자의 신원조차 不分明하다. 다만 箕京과 大同江을 배경으로 永明寺에서 士小娘 仙娥들이 노는 곳에 絶色 楊貴妃 長信宮 李夫人 虞美人등이 나타나 그들의 怨恨과 所懷를 듣고 歌舞, 談笑를 즐긴다는 단순구성이다. 이들은 모두 悲劇의 체험을 함께한 여인들로, 生의 無常을 몽유의 형태를 빌어 은유되고 있다.⁴³⁾

安憑夢遊錄은 仁祖年間] 작품으로 추정되며, 夢中世界에서 여러 종류의 꽃을 역사상 實在했던 人物에 假托하여 의인화한 異色作品이다.⁴⁴⁾ 安憑이 꿈에 朝元殿에 인도되어 그곳서 李夫人 班婕妤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 詩로 所懷를 읊은 후 覺夢하여 後園에서 꿈에 체험한 갖가지 花卉를 目睹한다. 王은 牡丹 侍女는 桃李 班姬는 芍藥 李夫人은 安榴 徂徠先生은 竹 首陽은 梅 東籬隱逸은 菊 周氏는 蓮등으로 자기 의인화되어 있으나 主題意識이 부각되지 못한 異色夢遊小說이다.⁴⁵⁾

앞서 논술한 다섯 작품들이 모두 現實에 대한 反動으로 士大夫들의 分裂과 墮落이 작품 생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元生夢遊錄 達川夢遊錄 皮生冥夢錄 江都夢遊錄등은 어떤 特定된 역사적 사건에 연루되어 冤魂들이 등장하여 당시의 冤抑과 非理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現實批判型으로 論述될 수 있다. 車溶柱는 元生夢遊錄을 〈悲憤型〉으로 그밖의 세 작품은 〈批判型〉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徐大錫은 江都夢遊錄을 視點에 따라 〈傍觀者型〉그밖의 세 작품을 몽유자가 몽중세계에 직접 등장하여 夢中事件의 主役이 된다고 하여 〈參與者型〉으로 구분하고 있다.

元生夢遊錄에서는 몽유자 元子虛가 幅巾野服에 인도되어 王과 臣下가 함께 모인 자리에 머무는데 여기서 그는 古今の 興亡盛衰를 논하다가 慷慨詩를 읊으며 그들의 感懷를 듣는다. 먼저 王(端宗)의 吟咏을 뒤이어 朴彭年 成三問 河緯地 李塏 柳誠源 그리고 夢遊者가 잇달아 朗吟한다. 노래가 끝나자 俞應孚가 뛰어들어 腐儒와는 大事를 논의할 수 없다며 劍舞로 悲歌를 읊는다. 이 작품은 世祖에 의한 端宗의 손위와 그를 復位시키려다 處刑된 死六臣事件을 素材로 삼고 있다. 몽유자(元子虛)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林悌의 작으로 보면 작품 속의 〈野史〉는 南孝溫의 秋江冷話 중 〈六臣傳〉을 뜻하는 것이 되므로 幅巾者는 南孝溫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작품은 결국 廢位된 단종을 동정하고 死六臣의 忠節을 숭앙한 나머지 夢中

43) 浮碧夢遊錄은 작자 연대 미상의 단편으로 姜東輝氏가 學界에 소개하고 있다.

44) 安憑夢遊錄은 서울大 中央圖書館藏으로, 筆寫本 古典小說全集에 의거하였다. (亞細亞文化社) 卷三 1980.

45) 車溶柱, 前掲書, p. 145 「安憑夢遊錄」 참고

世界를 통해 悲憤慷慨가 토로되었을 뿐 아니라, 작자의 이러한 태도는 그후 그들을 동정하던 林梯 당년까지의 社會輿論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達川夢遊錄과 皮生冥夢錄은 民族的 비극 壬辰倭亂을 時代的 背景으로 삼고 있다. 達川夢遊錄의 夢유자 坡潭子是 작자 尹繼善(1577~1604)의 雅號다. 작품 속의 〈萬曆庚子〉와 〈九載之間 戰場已古〉를 참고하면, 저작년이 선조 33年(1600) 작자 24세의 창작이 되는 셈이다. 작자 尹繼善은 尹元衡의 몰락과 조부 尹春年의 탄핵등 정치적 충격과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났으므로 자신이 직접 夢유자가 되어 湖西를 암행하다가 達川江의 慘狀을 蝴蝶의 인도를 받아 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坡潭子가 목격한 戰死한 死靈들의 慘狀이 사실적이기도 하거니와 衆鬼들은 申訟이 天險의 要塞(竹嶺)을 버리고 彈琴臺에 背水陣을 쳤다가 大敗하였다 하여 主將(신립)의 무능을 痛罵하며, 夢유자가 평소애 숭앙하던 李舜臣 高敬命 金千鑑 趙憲 등을 만나 그들의 元한(詠詩)를 듣고 뜻을 받들기로 맹세한다. 이 작품에는 壬亂이 빚은 慘狀에 대한 社會的 輿論이 反映되어 있다.

皮生冥夢錄은 亂後 屍身의 收葬問題를 다룬 異色の 作品이다. 夢유자 皮生이 만난 李憲은 장차 克信이 친부인 자기의 屍身을 두고 대신 역리 金儉孫의 시신을 매장하였다고 원통해 한다. 이에 儉孫이 나타나 克信母와의 前生緣을 말하고 收葬의 합리성을 강변하자 皮生은 今世 夫婦의 合當性을 말하고 그들이 함께 克信을 비난하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金儉孫의 三生之說을 皮生이 叱責하는 것을 보면 世俗佛敎의 輪回說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 당시 崇儒抑佛의 思想的 背景을, 亂後 社會問題로 惹起된 屍身의 收葬素材와 함께 이해될 수 있다.⁴⁷⁾

江都夢遊錄은 丙子胡亂을 배경으로 江都 失陷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亂中 官僚行爲를 규탄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夢유자 淸虛禪師는 직접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江華 失陷時 節死한 婦女들의 입을 통해 自責과 反省의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당시 檢査사 金慶徵의 부인에서 王后의 姪女 重臣의 아내 尹昉의 처 강화유수 張紳의 처등 열 네명의 부인들이 會同하여 그들의 舅父 남편 자식들이 不忠하여 天然 要塞 江華를 수비하지 못하고 父母·妻子를 節死케 하고 胡王에게 恥辱의 降書를 바치는 등 未曾有의 國恥를 招來케 한데 대한 批判을 對談의 형식으로 담담하게 펼치고 있다.

전술한 夢遊錄들이 理想 토로와 現實비판이라는 강한 倫理的 主題意識이 지배하고 있음을 볼 때, 현실에 만족치 못한 慷慨한 선비들이 곧 夢유자요 작가였으므로 표기 수단을 漢字로 하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봉건관료 질서가 차츰 해체되면서 소외당한 士

46) 元生夢遊錄의 작자로는 天台山人의 林白湖說 이래 張德順교수의 晦月堂說, 李家源교수의 元昊說 등이 있으나 林梯作으로 보아야 온당하다. (拙稿 白湖林梯論)참조

47) 徐大錫은 李克信의 人物됨을 宣祖實錄에서 찾아 歷史的 實在性을 확인하고 있다. (前揭論文 p. 149)

大夫의 역사관심이 차츰 多邊化되면서 더 이상 폐쇄적 역사공간 속에 머물 수 없게되자 풍유록도 차츰 퇴색되어 영웅소설과 결부된 天宮夢遊錄 夢決楚漢訟(諸馬武傳)같은 작품을 낳게 되고, 日帝下에선 민족적 투쟁정신을 고취한 꿈하늘(申采浩), 混亂期 知識層의 경륜을 토로한 夢見諸葛亮(劉元杓) 등의 작품으로 차츰 변모를 보이게 된다.

② 夢遊類小說

夢字類小說是 構成面에서 주로 現實的 理想을 다루고 있어, 幻想的 懷古의 사실들을 다룬 夢遊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創作時期에 있어서도 兩者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代表的 作品으로는 玉樓夢과 玉麟夢 玉仙夢 등을 들 수가 있다.

玉樓夢은 回章體小說로 64회에 무려 六百餘面에 이르는 龐大한 스케일의 作品이다. 玉樓夢과 玉蓮夢을 비교해 보면 玉蓮夢은 玉樓夢을 簡素化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金起東教授의 언급대로 玉樓夢의 翻案이 玉蓮夢일 可能性이 여러가지로 크다고 하겠다. 天台山人은 玉樓夢을 九雲夢의 變안작품이라 규정한 뒤 南益薰(1640~1692)作說을 소개하고 <快讀我玉蓮子之玉樓夢一篇>의 玉樓夢 서문을 인용, 玉蓮子가 玉蓮夢의 표제와 동일한데 유의하고, 또 玉蓮夢의 南廷懿序에 <祖父潭樵公遺稿>라 한 것을 들어 玉蓮子와 南益薰을 동일인으로 추정하였다가 다시 增補版에서는 潭樵를 南九萬의 五代孫 南永魯(1810~1854)로 수정하여 玉蓮子와 南永魯를 동일인물로 보고 있다. 具滋均교수는 그 뒤 玉蓮子와 南永魯를 별개의 인물로 보고 「肅宗代 南永魯說」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⁴⁸⁾ 어쨌든 玉樓夢의 작자가 南益薰이라면(南永魯가 이를 한글로 번역) 그의 生存은 顯·肅宗代이고 그의 下世가 西浦보다 一年 뒤이니 九雲夢과 同時代의 作品이 되어 九雲夢의 模作 즉 구운몽 이후의 作品이라 보는 지배적 견해에 접근되나, 閔丙秀교수의 주장대로 玉樓夢을 宣仁祖 이후 肅宗 이전의 제작으로 끌어올리면 玉樓夢 先行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⁴⁹⁾ 天上 白玉樓에서 우연히 相逢한 인연으로 得罪한 文昌星과 帝傍仙女 諸天仙女 天妖星 紅鸞星 桃花星등이 人世에 謫降되어 文昌星은 楊昌曲으로 그밖의 諸仙女는 江南紅 尹小姐 黃小姐 碧城仙 一枝蓮으로 각각 태어난다. 그리하여 楊昌曲을 중심으로 인연맺은 그의 정실 尹夫人·黃夫人 또 부실 江南紅 碧城仙 一枝蓮 다섯 여인이 한 집에 모여 和合하는 구성으로, 浩瀚한 구상 緻密한 표현에 있어 他作品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西浦의 九雲夢이 人生을 否定하고 영원한 종교적 이상을 지향한데 대해 玉蓮子의 玉樓夢은 보다 現世적이고 享樂의 姿勢를 반영하고 있다.⁵⁰⁾

玉蓮夢은 玉樓夢의 한 異本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作品으로 主題나 構成面에 있어서는 玉樓

48) 具滋均, 玉樓夢을 통해 본 小說史의 問題點(民族文化研究 1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4.

49) 閔丙秀, 韓國漢文小說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 V), p. 1042 참고

50) 玉樓夢은 타 소설에 비해 技法面에서 더한층 成功한 作品이며, 軍談小說類의 定石의 手法에서 進一步하고 있다. 徐大錫, 玉樓夢의 葛藤構造(啓大韓國學論集 1집) 1973.

夢과 大同小異하고 다만 중간부분에서 옥루몽보다 상당히 축약된 느낌을 주고 있을 따름이다.

玉麟夢도 玉樓夢과 같이 35회에 걸친 상당 규모의 回章體小說이다. 가람 李秉岐先生은 悔軒 李庭綽이 金春澤이[漢譯한 九雲夢 南征記등을 보고 玉麟夢 15卷을 지었는데 그 글이 奇妙하여 중국에 들어갔더니 중국인이 탄식하여 이를 늘려 80권으로 만들었다고 한 趙彥林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⁵¹⁾ 李庭綽(1678~1758)은 肅·英代의 인물인데 내용은 謝氏南征記와 유사하다. 呂夫人이 柳夫人을 질투하여 모함하나 결국 유부인이 승리하고 그의 선처로 여부인이 회개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玉仙夢 역시 回章小說로 宕菴翁이 그 작자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의 枕中記와 九雲夢의 중간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智異山 밑에 살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해 한탄하던 許巨通은 靑鶴洞에 올라 암자에서 잠깐 조는 사이에 중국 錢塘으로 들어가 錢處士의 아들로 탄생한다. 거기서 그는 온갖 富貴를 누리다가 만년에 道僧을 만나 生의 無常과 輪廻의 이치를 논하던 중 놀라 깨달으니 一夢이었다고 하였다.⁵²⁾

西浦 金萬重의 九雲夢도 원작이 漢文本이었음이 거의 확실해졌다. 丁奎福교수는 九雲夢 老尊本(漢文)이 異本 가운데 宗主本이며, 九雲夢이 지닌 構造的 問題와 西浦門中の 說話등을 종합하여 九雲夢이 원래 漢文으로 創作되었을 可能性을 考證하고 있다.⁵³⁾

이렇게 볼 때 먼저 九雲夢을 필두로 玉樓夢과 玉蓮夢이, 그리고 그뒤 다시 玉麟夢, 玉仙夢이 잇달아 창작되어 이른바 夢字類小說의 그룹을 형성한다. 그러나 玉麟夢은 몽자소설의 구성상 현격히 이질적 작품이며 玉樓夢만 하더라도 영향면에선 九雲夢과 수수관계가 인정되나, 구성상으로는 오히려 非夢字小說인 林虎隱傳 張國鎮傳이나 오히려 六美堂記와 同系の 작품으로 평가되어질 성질의 작품이다.⁵⁴⁾

5. 艷情·道德小說

艷情類는 가장 일찍 발달된 소설의 장르로서 본격적 작품으로는 周生傳 雲英傳 英英傳 紅白花傳 淑香傳을 비롯하여 三韓拾遺 六美堂記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周生傳은 宣祖代의 文章家 石洲 權韞(1569~1611)의 所作인데, 그는 章敬天傳(失傳)이란 艷情作品도 남기고 있다. 周生傳은 創作된 時期로 보아 金鰲新話와 洪吉童傳을 잇는 교량역을 맡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가 작품의 주인공 周生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의 敍述形態인 假托의 構成法을 쓰고 있다. 周生이 壬亂時 원병도둑 李如松 휘하장의 서기로 松京에 머물고 있을 때 石洲가 그를 만나 들은 이야기의 형태로 기술해 나간다. 周生이 俳桃와 仙花를 통한

51)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楊山 趙彥林·二四齋記聞錄」

52) 金起東, 玉仙夢攷(東大 國語國文學論文集 3집), 1962

53) 丁奎福, 九雲夢研究(高麗大出版部), 1973, 「原作에 對하여」

54) 成賢慶, 李朝夢字類小說研究(국어국문학 54집), 1971.

三角戀愛와 그 葛藤을 주제로 삼은 이 작품은 구성에 있어 唐代 會眞記나 霍小玉傳의 영향을 받고 있어 比較文學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詞〉의 插入文體로 보아 詞文學의 발달과정을 보여 주기도 한다. 더구나 작자가 宮柳詩事件으로 하여 非命에 죽은 慷慨之士라는 사실과, 전쟁의 발발로 朝鮮에 종군하느라고 끝내 仙花와의 佳緣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비극적 사실을 연결해 볼 때, 작자의 寓意가 가탁되었음에 틀림없다. 주생전은 첫째 금오신화와 같은 傳奇類를 뒤이어 艷情小說의 길을 개척해 주고 있다는 점, 둘째 假托法을 쓰고 있다는 점, 셋째 背景을 唐代傳奇에 두고 새 構成法을 創出하고 있다는 점, 넷째 周生과 俳桃 仙花와의 관계를 통해 비극적 성격을 특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⁵⁵⁾

雲英傳은 여러면에서 周生傳과 相似點을 지니고 있다. 假托의 구성법도 비극적 종결법도 같다. 雲英傳은 주인공 柳泳이 萬曆 辛丑 春에 安平大君의 故宮 壽聖宮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꿈속에서 죽은 金進士와 雲英의 영혼을 만나 그들의 생전 원한을 듣는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다.⁵⁶⁾ 운영전은 왜란 후 封建社會의 崩壞와 더불어 빚어진 궁녀 雲英의 비극을 바탕으로 安平大君의 정치적 비극, 전쟁비극이 코러스된 綜合的 產物이다. 俳桃가 죽고 故國을 떠난 周生이 仙花를 그리는 비극과는 다소 구성상 차이가 발견되나 本質的으로는 安平·金進士·雲英의 갈등이 周生·俳桃·仙花의 갈등과 一致한다.⁵⁷⁾ 安平大君을 중심한 종적 면은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운영을 중심한 횡적 면은 架空의 날로 짜여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임란을 배경으로 전후 女性들의 자각이 무르익고 安平이 復位되며 實學이 싹터난 肅·英朝의 歷史意識을 질게 풍겨주고 있다.⁵⁸⁾ 그리고 假托의 技法은 이미 鶯鶯傳에서 李公垂가 元稹의 집에 전한 이야기를 듣고 앵앵이 신비의 여인이라 생각되어 會眞記(앵앵전)를 지었다고 하고, 趙緯韓도 崔陟의 來訪을 받아 그의 기구한 운명을 기술한 형식으로 崔陟傳(奇遇錄)을 지었다고 하였으며, 朴趾源도 虎叱을 玉田縣 沈由朋의 格子며 薊州市場의 買物이라 가탁하고 있다.⁵⁹⁾

英英傳은 相思洞記 또는 檜山君傳이라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金生이란 신비와 檜山君의 시녀 英英(蘭香)의 연애담을 중심으로 결구되어 있다. 雲英傳에서 夢中 構成만 빼어 버리면 英英傳과 같다. 歷史性도 매우 짙어 동일 작가의 작품이 아닌가도 의심이 간다. 金進士가 사다리(槎橋)를 통해 궁궐의 담을 넘어 들어가 雲英을 만나듯 金生도 궁궐을 뛰어넘어 英英과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운영전이 주인공들의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데 비해 영영전은 주인공들의 단란한 결합으로 善終을 이루고 있어 좋은 對照가 된다.

55) 拙稿, 石洲 權輶小攷(崇田大學論文集 6집), 1976.

56) 南炎浮洲志, 龍宮赴宴錄같은 夢遊의 方法이 雲英傳 九雲夢에 이어지고, 萬福寺楊蒲記·李生窺牆傳같은 冥魂소설이 梁山伯이나 再生緣(淑英娘子傳)에 이어진다고도 한다.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대출판부), 1970, pp. 229~231

57) 柳泳은 作中人物이지 결코 作者는 아니다. 大谷森繁, 雲英傳小考[朝鮮學報 37. 38호], 참고.

58) 拙稿 雲英傳研究(亞細亞研究 41집), 고대 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成賢慶, 雲英傳의 構造(朝鮮後期の 言語와 文學), 韓國語文學會, 1978.

59) 拙稿, 奇遇錄論攷(金聖培박사 回甲紀念論文集), 1977. 拙稿, 虎叱再論(崇田語文學 2집), 1973, 참고

紅白花傳은 背景設人이 중국이고 한 男性이 두 女性과 결혼하게 되는 一夫多妻主義의 결연 과정으로, 구성의 현실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一枝와 織素의 사랑에 邦彦이 끼어든다. 織素는 시비 蘭芝의 집에 머물면서 邦彦과의 결연을 피하고 薛小姐와 一枝 사이의 관계를 성사시켜 주기 위해 變裝으로 과거에 及第하여 薛小姐를 만난다. 그후 大長公主가 一枝로 擇婿 하려 하자 직소는 邦彦으로 駙馬를 삼게 하고 자신은 끝내 薛小姐와 함께 一枝와 결혼하여 幸福을 누린다.

淑香傳은 梨花亭記 梨花亭奇遇錄이라고도 하는 異本이 전하는 작품으로 이미 春香傳이나 沈清傳 襄裨將傳에도 淑香이야기가 引用되고 있다. 그보다 壬亂 때 포로되어간 사람들의 후손에 의해 日本에 傳하는 淑香傳은 16세기 말에 이미 執筆되었다는 說도 있다.⁶⁰⁾ 春香傳만 하더라도 이미 柳振漢의 晚華集에 의하면 英祖30年(1754)에 된 이른바 晚華本 春香傳(漢文 春香歌)이 보이니 淑香傳은 이보다 훨씬 앞선 작품이다. 이 작품은 上界에서 謫降한 李仙이 淑香과 온갖 苦難을 겪은 끝에 地上에서 佳緣을 다시 맺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結구되어 있는데, 愛情보다는 淑香의 卍難만장한 苦行譚이 오히려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道仙思想을 배경으로 非現實의 傳奇性을 띠고 있음이 癖으로 지적된다.

金紹行(1765~1859)의 三韓拾遺와 金在堉(1808~1893)의 六美堂記는 작자가 작품의 公理성을 의식하고 지은 후기 艷情小說의 대표적 작품으로 道德小說로도 볼 수 있다. 三韓拾遺는 義烈女傳 또는 香娘傳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작품으로, 無怠居士의 跋文에 의하면 1814년(純祖 14)의 작품이며, 六美堂記는 普陀奇聞 또는 金太子傳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으로 雲臯 金在堉의 생애로 미루어 보면 竹溪 金紹行의 三韓拾遺와 비슷한 연대의 창작임을 알 수 있다. 三韓拾遺는 경북 善山地方에 발생한 烈女 香娘의 冤死事件을 素材로 하여 이를 三國時代로 끌어올려 花郎들의 武勇譚을 삽입시키고 三國統一 課業을 이룩한 香娘의 陰功까지를 虛構化해 놓고 있으며, 六美堂記는 金太子 簫仙이 孝誠을 인연으로 雲英(金星公主)과 玉星 薛小姐등과 사랑을 맺고 그들의 시비 秋香 雪香 春鶯과도 인연을 맺어 六美堂에 거처하며 普陀山에 놀다 昇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六美堂記 역시 나중 簫仙이 倭寇의 侵攻을 물리치는 구성을 보면, 두 작품 다 사랑을 媒體로 民族說話 내지 民族意識과 結부되어 있어, 자주를 표방한 의도적 창작의 특이성을 찾아 볼 수 있다.⁶¹⁾

彰善感義錄은 道德小說의 代表的 作品으로 손꼽힌다. 이는 冤感錄 花珍傳 花門忠孝錄 花荊玉傳등 다양한 異本이 있다. 金台俊은 그의 朝鮮小說史에서 작자로 鄭浚東 또는 金道洙라는 인물을 들고 있으나 수증할만한 근거가 없고, 그가 引示한 松南雜識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拙修公行狀에 <母夫人이 古今의 書籍을 많이 보았고 소설 읽기를 좋아하므로 몇권 소설을 지어

60) 李渭應, 九州苗代川에서 발견된 壬亂遺民 沈氏家世傳本 淑香傳研究 「開校二十周年論文集」, 釜山大學校, 1966.

61) 金起東, 三韓拾遺·六美堂記(李朝時代小說의 研究), 成文閣, 1974.

드렸는데 世間에 전하는 創善感義錄과 張丞相傳이 그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작자는 拙修公 趙聖期(1638~1689)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주인공 花珍은 그의 異母(沈夫人)에게 갖은 虐待를 다 받으면서도 이를 원망함이 없이 끝까지 孝道로 섬겨 감화시키고 있다. 異腹兄 花璿의 방탕으로 차츰 花門의 가도가 문란해지며, 花珍을 시기하여 尹夫人을 간신 嚴丞相의 며느리로 들이고 南夫人을 독살하는등 갖은 陰謀를 다하나 花珍은 이런 試鍊 속에서 헤어나 大元帥가 되어 朝廷을 회복하며 끝내는 奸惡을 극한 沈夫人도 회개하고 이산한 尹·南夫人도 邂逅하여 花門一家가 和平을 되찾기에 이른다. 이는 翟成義傳과도 類似點이 많다. 花珍은 沈夫人의 학대를 무릅쓰고 끝내 그녀를 감화시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나, 成義는 모후의 병을 구하고자 仙藥을 찾으려 장애를 무릅쓰며 西域行을 일삼는다. 또 花珍은 楊少游나 楊昌曲과도 同質性을 지녀, 유교의 공리와 名分主義에 철저히 부응된 이상적 인물이다. 彰善感義錄은 가족간의 갈등을 다룬 家庭小說이기도 하며, 善惡의 갈등과 대결로써 시대상을 묘사하고 의를 고창한 歷史小說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으나, 작품 속에 관류하는 근본사상은 孝이며 따라서 이 작품은 道德小說(倫理小說)의 대표작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도덕소설로는 翟成義傳 沈清傳 興夫傳 金鶴公傳 報心錄등 한글소설이 많으나 彰善感義錄은 漢文小說에서 발원한 대표적 작품이며 花門忠孝錄이란 異名에서 보듯이 30여편에 이르는 각종 孝行錄 忠孝錄 계열 작품들의 소설화과정을 보여주는 典型이기도 하다.⁶²⁾

6. 歷史·軍談小說

여기에는 이른바 歷史的 내지 虛構的 英雄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모두 포함된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壬辰錄 林慶業傳 崔孤雲傳을 비롯하여 南洪量傳 雲香傳등을 손꼽을 수 있다.

壬辰錄은 壬辰倭亂을 배경으로 전란 후 주로 민중들 사이에 전승된 說話와 영웅들의 武勇譚을 중심으로 민족적 忿怒와 反省을 아울러 표출하고 있는 일종의 精神史的 작품이다. 이 작품군에 대하여서는 필자가 이미 單行本으로 學界에 研究書를 제시한 바 있거니와,⁶³⁾ 지금 남아 전하는 漢文本으로 李明善本과 高大本(壬辰錄兼兎事)은 이미 그 이전에 權寧徹本과 같은 한글 임진록이 있었고 그것이 臺本이 되어 漢文本으로 번역되었으며 이가 다시 단편적 說話들을 수용하여 慶北大本같은 형태로 변형되고 있음은 이미 論證한 바와 같다. 國立圖書館本(漢文本) 같은 壬辰錄은 藏書閣本(丹室居士)같은 史料 중심의 작품화로, 說話중심의 前記 作品과는 系統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壬辰錄의 경우를 보면 모든 作品이 漢文本이 먼저고 그 번역과정에서 한글본이 파생되었다는 일반적 통념은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⁶⁴⁾. 한 작품 안

62) 車裕柱, 彰善感義錄 解題(螢雪出版社), pp. 200~231 참고

63) 拙著, 壬丙兩亂과 文學意識(韓國研究院) 중 「壬辰錄研究」

64) 上掲書, p. 84 「異本問의 相關關係圖」 참고.

에서도 作者나 讀者의 기호 취향에 따라 縮約과 脫落 添削과 敷衍이 더해지면서 한글과 한자의 표현수단이 넘나들고 있어, 이는 餘他 作品에서도 일단은 검토되어야 할 과정이다.

林慶業傳은 丙子胡亂을 배경으로 부각된 歷史의 英雄의 대표적 전기작품으로 일명 林將軍傳이라고도 일컬어진다. 丙子胡亂은 壬辰亂과 40여년의 간격밖에 없으므로 이 작품도 壬辰錄과 마찬가지로 난후 民衆들의 時代意識을 흡수하여 斥外・排淸思想을 짙게 반영하고 있다. 正祖命撰인 林忠愍公實記가 이룩된 것이 林慶業 사후 140년이요 尤菴 宋時烈이 이미 역사적 전기 「林將軍慶業傳」을 그의 宋子大典에 남겨놓고 있는 사실을 연결해 보면 林慶業將軍이 어떤 경과를 밟아 영웅화되고 소설화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林忠臣傳으로 된 漢文本도 있는데 이도 역시 林忠愍公實記・朝鮮歷代名將傳・國朝人物誌같은 기록에서 史實을 근간으로 하여 한문본 소설로 고착된 것으로 짐작된다. 가령 朴氏傳에서 보는 朴씨의 道術장면이나 林慶業傳에서 보는 景岳의 후손이 金自點의 屍身을 놓고 잔인한 복수를 하는 誇張된 표현을 한문본과 대조해 보면 한문본이 얼마나 事實쪽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⁶⁵⁾

崔孤雲傳은 崔致遠傳 또는 崔文憲傳이라고도 필사되어 있다. 이 작품도 역시 漢文本에서 출발한 歷史英雄型 소설의 대표적 작품이다. <금쇄지>의 지식으로 태어난 崔致遠의 出生譚서부터 詩才를 떨쳐 中原으로 건너가 科擧에 급제하고 黃巢의 亂을 평정한 후 奸臣의 참소를 계기로 故國에 돌아와 入山終命하기까지 시종 독창성과 참신한 주제성이 발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미 그 제재가 殊異傳의 民譚 崔致遠傳說에 연결되어 있으며⁶⁶⁾ 다만 중국민족에게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전승과정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일 따름이다. 작품의 형성 연대에 있어서도 鄭炳昱교수가 이미 「崔文獻傳 紹介」에서 밝히고 있듯이 崔文獻傳이 沙溪의 아들 愼獨齋(金集)의 手擇本이라는 점 <正德年間>이란 연대가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宣仁朝에 형성된 作品으로 추단된다.⁶⁷⁾ 이러한 歷史英雄들의 전기는 비록 時代의 간격은 있으나 그후 李舜臣傳 金德齡傳 郭再祐傳 金庾臣傳 乙支文德傳 姜邯贊傳등에 이어져 實記를 중심으로 창작되어 民族의 受難期에 민중의 결속을 도모하는 정신적 영양을 공급하기에 이른다.

創作軍談의 대표작으로는 南洪量傳(국립도서관)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한글 영웅소설에서 보는 인물들의 結緣譚이나 修學 苦行譚도 없이 武勇譚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南鑠域國의 南洪量은 徐齒遇와 죽마고우로서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길에 오르나 突厥의 침략을 받자 국왕은 자신의 참소로 유배된 龍天將軍을 찾아오게 하여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다. 南洪量은 그 공으로 安南王에 徐齒遇는 鎮南王에 봉해지며, 이들이 국왕을 잘 보필하고 善政을

65) 拙稿, 朴氏傳과 林慶業傳(壬丙兩亂과 文學意識), pp. 303~329. 朴氏傳도 李時白의 實記를 근거로 丙子胡亂과 그 주변의 史譚類를 주축으로 출발하고 있다. 史在東, 朴氏傳의 形成過程(歐菴池憲英先生 古稀紀念論叢), 1980 참고

66) 崔南善편, 三國遺事 附錄 「殊異傳逸文」

67) 鄭炳昱, 崔文獻傳紹介 (庸齋白樂濬博士還曆國學論叢), 國文學散藁, 참고

베풀어 南讎域國이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작품은 壬丙兩亂 후 한때 유행하던 한글본 창작군담의 모방인 듯 분량도 상당하나 技法이나 주제면에서 亞流의 작품들이다.

雲香傳은 여주인공 雲香을 영웅화하고 있다. 운향이 慶雲과 결혼하여 庶母의 학대로 打殺되는 과정은 가정소설을 모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출전한 남편 대신 雲香이 싸움터에 나가 적병을 섬멸하는 특이한 구성법이다. 운향의 이러한 能動的 행위의 이면에는 자신을 학대하는 서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는 정숙한 여인으로서의 일면이 있어 조화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운향의 불교적 출생담, 부모의 승친담에서 보는 신선사상은 苦行의 강화소로 더한층 돋보이게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역사적 인물은 주로 實記·實錄이 바탕이 되어 출발하여 時代的·民族的 기대 속에서 성장하여 점차 대중화의 발판을 굳혀 나가고 있으며, 창작군담의 경우는 劉忠烈傳 蘇大成傳 趙雄傳 張國鎮傳 등 50여편에 이르는 軍談의 일반화과정에서 더러 漢學者의 손을 빌어 中원의 지식을 배경으로 漢文本의 창작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7. 諷刺小說

燕岩 朴趾源(1737~1805)은 諷刺를 의식하고 作品活動을 편 代表的 作家다. 그는 珠玉같은 短篇(10편)들을 통해 諷刺文學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18세에서 30세까지에 지었다고 하는 馬駟傳 穢德先生傳 閔翁傳 兩班傳 金神仙傳 廣文傳 易學大盜傳 鳳山學者傳의 9편을 放瑠閣外傳에 싣고 있는데, 이는 모두 熱河 이전의 작품이며 「後識」에 의하면 연암 若冠時의 작품이라 하여 아들 朴宗侃에게 毀棄를 명하고 있다. 虎叱과 許生傳은 熱河日記 속의 작품으로 연암의 가장 得意作이라 할 수 있으며, 烈女咸陽朴氏傳은 연암 말기(57세)의 작품으로 실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⁶⁸⁾ 그러나 본고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 ① 兩班·許生·北郭 등 士大夫階層을 주동으로 한 下向諷刺(兩班傳 許生傳 虎叱) ② 馬駟·嚴行首·廣文·閔翁·金弘基·李彥瑱 등 賤民階層을 주동으로 한 上向諷刺(馬駟傳 穢德先生傳 廣文傳 閔翁傳 金神仙傳 虞裳傳), 烈女朴氏를 주동으로 한 社會諷刺(烈女咸陽朴氏傳)의 세 分類를 통하여 燕岩小說의 총체적 성격을 밝혀 보려고 한다.

① 士大夫階層을 통한 下向諷刺

양반전은 〈此實做王褻僮約而作〉⁶⁹⁾에서 보면 王褻의 僮約을 模倣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僮約이 漢代 奴隸虐待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 비하면 양반전은 봉건조선의 階級打破를 主

68) 李家源교수는 창작 연대에 따라 一期「馬駟傳 穢德先生傳 廣文者傳 閔翁傳 兩班傳 金神仙傳 虞裳傳 易學大盜傳 鳳山學者傳」二期(虎叱·許生) 三期(烈女咸陽 朴氏傳)으로 구분하고 있다. 燕岩小說研究, 乙酉文化社 참고

69) 燕岩集, 卷 8, 放瑠閣外傳 附書

題로 삼고 있어 근본적으로 사상이 다르다. 그의 自序에는

「선비란 天爵으로 勢利를 꾀하지 말 것이니, 선비는 몸이 비록 顯達하더라도 선비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몸이 비록 困窮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른바 선비들은 名節을 닦기에 힘쓰지 않고 부질없이 門閥만을 奇貨로 여겨 그 世德을 팔고 사기되니 이야말로 장사치에 비하여 나을 바가 없다.」⁷⁰⁾

라고 하여 이를 창작의 동기로 삼고 있다. 封建階級の 타파, 封建經濟의 瓦解, 北學思想의 배동, 方言 民俗의 애용, 이 네 측면에서 분석한 李家源教授의 견해는⁷¹⁾ 階級打破, 形式主義, 封建經濟의 붕괴, 양반의 위선폭로의 네 항목으로 분석한 金一根교수의 견해와 일치한다.⁷²⁾ 이점은 李在秀교수의 견해도 倣似하다.⁷³⁾ 兩班과 賤民의 계층 분화, 富의 蓄積(양반)과 萎縮(천민), 천민의 신분 탈피 욕망을 제반 사회의 문제들이 함께 소설 유기체로 구조화하면서 풍자적 충동을 충족시키고 있다.

許生傳은 熱河日記 玉匣夜話(또는 進德齋夜話)에 실려 전하는 작품으로, 進德齋夜話 後識에 의하면 연암 20세 때 奉先寺에서 독서하던 시절에 그곳 尹映이란 老人에게서 옛들은 얘기라 하였다. 그는 그후 辛齋과 籟笠 李生員을 만나는데 세 사람 모두가 같은 인물로, 이는 결국 許生故事를 제공해준 講談師가 되는 셈이다.⁷⁴⁾ 許生은 保守와 退嬰으로 구조화된 朝鮮社會의 병리에 과감히 도전한 理想主義者다. 우리 文學史上 사회 병리를 이처럼 날카롭게 파헤친 理想主義者로는 許生이 처음이다. 그는 停滯의 병리를 重商主義로 길을 트고, 소위 時事三難을 통해 北伐論을 罵詈하면서 無人島를 설정하여 이상적 代案社會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치 洪吉童傳의 碇島國이나 水滸의 梁山泊과도 비슷하다. 이 작품은 許生의 분노로 끝맺고 있다. 그 분노가 무마되거나 종식되었다는 示唆은 없다. 그 時代의 社會 病理가 匡正되기까지 許生의 분노는 계속될 것이다.⁷⁵⁾

虎叱은 熱河日記 關內程史 속에 수록된 奇文이다. 연암은 이를 沈由朋의 작 또는 薊州市場의 商品으로 가탁하고 있지만 연암에 의해 自己文脈化된 創作性이 인정된다면 原作에 큰 의미를 제기할 까닭은 없다. 虎叱은 어디까지나 腐儒의 척결, 北伐論의 罵倒, 黨爭에의 야유가 공존하는 조선 정신의 결정이다.⁷⁶⁾ 黃溟江교수는 虎叱을 <범과 佞鬼의 세계인 山><寡婦가 사는 폐쇄적 공간> <범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들)>의 三場戲曲으로 분석하고 <범> <北郭><愚衆> 세 人物型의 對峙的 맥락에서 의미성을 파악하고 있다. 범으로 상징되는 本質的 人物型과 北

70) 燕岩集, 卷 8, 放孺閣外傳 自序

71) 李家源, 兩班傳研究(燕岩小說研究)

72) 金一根, 燕岩小說의 近代의 性格(慶北大 論文集 1집)

73) 李在秀, 燕岩小說考(韓國小說研究), 宣明文化社

74) 林榮澤, 許生故事와 尹映(韓國小說文學의 探究), 一潮閣, 1978.

75) 黃溟江, 許生傳(朝鮮王朝小說研究), 韓國研究院, 1978.

76) 燕岩集, 卷 12「略以己意 點綴爲篇焉」

郭, 東里子로 상징되는 非本質의 人物型, 그 사이에 愚衆으로 상징되는 無自覺의 人物型, 작자는 이 세 인물형을 봉건 질서 속에 수용하여 구체화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虎叱이 단순히 北郭流의 儒者를 비판함이 目的처럼 보이나, 범이 복곽을 꾸짖는 대목을 보면 一切의 人間文化의 非理를 叱責하는 것이라 보아진다. 北郭·東里子·虎의 대조적 성격을 통해 이 드러머는 現實 批判 내지 諷刺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② 賤民階層을 통한 上向諷刺

앞선 세 작품의 주인공들이 그들의 無能 부패 빼어난 능력등을 통해 社會를 下向諷刺하고 있는데 반해, 馬駟傳 穢德先生傳 廣文者傳 閱翁傳 金神仙傳 虞裳傳은 賤民階層을 주인공으로 삼아 社會의 非理와 矛盾을 향해 上向諷刺를 하고 있어 對照를 이룬다. 馬駟傳의 三狂士 宋旭 趙關拖 張德弘도 떠돌이이며, 嚴行首도 똥을 저 나르는 사람, 閱翁傳의 민영감도 세상을滑稽와 嘲笑로 살아가는 平民, 金神仙傳의 金弘基는 非現實의 隱者, 廣文傳의 광문도 不遇한 丐者로 되어 있다.

馬駟傳은 三狂士로 하여금 交道の 부패상을 일깨워 文人·學者의 사궤이 말기간꾼이나 집중도위만도 못함을 통탄하고 있다. 放瑠閣外傳의 自序에는, 벗이 五倫의 끝자리를 차지한 것은 마치 흙이 五行 중 끝에 자리잡고 있으나 四時의 어느 것에 흙이 該當치 않음이 없음과 같다고 하고, 이 오류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벗이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三狂士가 俗世에 벗이 되어 떠돌이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아침으로 교도를 일삼는 무리들에게 충고하는 정신이 바로 馬駟傳을 창작하는 동기라고 그는 기술하고 있다. 상대를 기리고자 하면 먼저 잘못을 드러내어 책망하며, 기쁨을 보여주려면 먼저 노염을 밝혀야 하며, 나를 믿게 하려면 짐짓 의심스런 듯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交友理論과, 아침의 방법을 上誥·中誥·下誥으로 구분하여 설파한 이론이 곧 작품 속의 滑稽先生 즉 燕岩 자신의 友情論이기도 하다.⁷⁷⁾

穢德先生傳의 嚴行首都 동네에서 똥을 저 나르는 것을 업으로 삼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賤農思想을 배격한 작품으로, 선비가 口腹으로 몸을 더럽히면 여러 행실이 결핍되며 술에 많은 음식이 쌓이면 食貪者를 경계치 않는다고 전제하고, 비록 嚴行首가 똥을 저나르며 살아가지만 입만은 조출하기 그지없다 하여, 이가 穢德先生傳을 짓는 까닭이라고 自序는 밝히고 있다. 자기의 德行을 똥 속에 파묻어 이 세상의 참된 隱士노릇을 하는 嚴行首야말로 蟬橋者의 벗이다. 子牧과의 대화에서 그는 <벗은 同居하지 않는 아내요 同氣아닌 아우>라고 하여, 嚴行首를 벗 아닌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強辯하고 있다.⁷⁸⁾

廣文者傳의 廣文은 丐者의 牌頭로, 殺人嫌疑까지 받는 철저한 疏外와 冷待 속에서 이를 극

77) 李家源, 馬駟傳研究(燕岩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

78) 李家源, 穢德先生傳研究(上揭書), 참고

복하고 人間愛를 꽃피우기까지의 道程이 서술되고 있다. 살인혐의를 무릅쓰고 동료의 시체를 水標橋에 묻고 藥肆의 失錢事件으로 또 의심을 받고 名妓 雲心이 快男·豪傑들을 모두 물리치고 廣文과 뜻을 같이했다는 사실은 실로 억눌린 자들의 감체를 반기에 충분한 혁신적 생활이념의 具顯이 아닐 수 없다. 광문전 뒤에는 〈書廣文傳後〉의 奇文이 붙어 있다. 이는 廣文續傳이라고도 이를만한데, 작자 연암이 諧譚·小說에 일찍 傾心하였으며 廣文의 醜貌를 목격한 이야기 本傳의 동기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선배들의 칭도를 기록하고, 특히 廣文이 얼굴이 누추하여 감히 美女를 얻어 장가들 수 없었다는 「男女同等權의 주장」은 注目을 끈만하다.

閱翁傳에서 〈訕諷滑稽 翫世不恭〉하는 閱翁은 그의 울분을 작품 속에 戲言으로 발산하고 있다. 閱翁은 사람을 곡식 축내는 벌레(蝗虫)로 알 뿐더러 道를 얻어 그의 조화는 龍과 같고 滑稽에 취미를 붙여 세상을 비웃으며 해마다 바람벽에 글을 써 스스로를 분발하였다고 그의 自序는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또 까마귀를 그리지 않느냐〉는 아내의 조롱을 보면 그는 아내에게까지 理解받지 못하는 人物이다. 富者는 세상에 연연하나 貧者는 세상을 싫어하니 빈자가 곧 神仙이며 매일 먹는 밥이 결국 가난한 자의 不死藥이며 부자는 빈자를 괴롭히는 蝗虫이라 하여, 가난한 자의 처지에서 부자의 생각을 철저히 규탄 풍자하고 있다. 〈閱翁〉과 〈나〉로 대조된 이 작품에서 〈나〉는 젊은 소년으로 귀한 신분인데 반해 〈閱翁〉은 늙은 老人이며 微賤한 신분으로 되어 있다. 민옹전은 소설에 관한 소설로, 민옹은 소설가요 나는 독자의 입장인 二重構成法을 쓰고 있다.

金神仙傳의 金弘基는 일찍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낳고는 火食을 끊고 세상을 숨어산 大隱이다. 그는 〈不伎不求〉하여 남을 헐뜯거나 남에게 요구함도 없는 위인으로, 작자가 일찌기 우울증이 있어 金神仙의 方枝가 奇効하다는 말을 듣고 尹生과 申生을 시켜 智異, 金剛까지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한다. 연암은 山人이 곧 〈仙〉이요 入山이 〈仙〉이며 僊僊이 가버이 나는 것을 〈僊〉이라 하여 신선의 정의를 밝히고 있으며, 弘基의 〈鬱鬱不得志〉한 사실을 들어 이른바 厭世主義者들이 까닭없이 그리는 神仙思想을 배격하고 있다. 辟穀者라 해서 반드시 신선이 아니며 그들은 다만 당세에 不遇한 環境에 처한 자일뿐임을 역설하여 仙道家에 僞學이 恣行되던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고 있다.

虞裳傳의 虞裳은 譯官의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의 일생을 경동시킨 文章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다. 虞裳은 실인물인 松穆館 李彥瑱(1704~1766)의 字로, 楓阜 金祖淳도 李彥瑱傳을 쓴 바 있다. 한편 秋史의 제자인 藕船 李尙迪도 李虞裳先生傳을 남기고 있다. 우상은 옛 文章에 전력하여 그의 비운을 극복하려 하였으며 古禮를 상고할 길이 없을 때는 오히려 野人에게서 구하는 법이라(禮失求野)하였으니 야인은 곧 우상의 일컬음이다. 우상전은 금오신화처럼 詩歌를 많이 插入하고 있어, 연암 단편 중에서 유독 文章의 特色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특히 日本과의 관계를 이채롭게 배경으로 삼고 있다.

易學大盜傳과 鳳山學者傳은 逸文으로 題名만 전한다. 朴宗侃의 기록 <上文之缺 下篇之失 以其聯卷 故並爲遺佚>에서 보던 上文은 虞裳傳 下篇은 易學大盜傳과 鳳山學者傳을 일컫는 바, 聯綴되었던 兩篇이 전자의 燒失로 함께 逸傳이 되었다. 그의 自序에는 세상이 쇠말하여 학자가 허위만을 숭상하고 山林處士의 이름을 盜得하여 玄妙의 易學으로 假裝하였으나, 내용으론 朝廷의 勢徒輩와 음성적 結탁을 맺어 갖은 추태를 연출하는 모습을 대담히 폭로하고 있다.

③ 烈婦를 통한 社會制度的 諷刺

燕岩의 작품 중 烈女咸陽朴氏傳은 만년의 작품(57세)으로 가장 通俗性을 띠고 있다. 작자가 安義縣監으로 부임했을 때 들은 通引 朴相孝의 조카딸의 殉節한 경위를 듣는 내용이다. 朴氏가 咸陽으로 시집가 일찍 寡婦가 되었으나 지아비의 3년이 나던 날 바로 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朴烈婦가 비록 身分이 微賤한 아전의 아내였으나 改嫁한 여자의 자손은 正職을 주지 말 것이라고 한 國典의 法처럼 당시 조선사회의 모순된 惡制度에 의한 守節·殉節의 美德을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朴氏夫人에 대한 表彰보다는 작자가 이에서 好機를 얻어 평소 그가 풀었던 女性解放 男女間의 本能問題에 대한 토로가 本旨였음에 틀림없다. <血氣有時而旺 即寧或寡婦而無情哉>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寡婦에게는 응당 정욕이 있게 마련이며 과부라고 守節해야 할 理由를 내세울 수 없다는 社會的 抗辯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⁷⁹⁾ 이 작품은 本傳보다 오히려 老寡婦와 두 아들의 問答으로 된 <銅錢굴리기>의 插話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의 淸宦을 막으려던 子息이 寡母의 忍死符인 銅錢을 10년 굴리는 동안 윤곽조차 알아볼 수 없이 닳은 것을 설명받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뉘우친다. 忍死符와 情慾論, 결국 이는 燕岩의 擬請疏通疏(卷 3)에서 보는 對社會觀의 일단이며, 그의 「金孺人事狀」 「朴烈婦事狀」 같은 데서도 그 사상의 일단이 표출되고 있다. 烈女咸陽朴氏傳은 결국 당시 사회 속에서 貞節이란 美名 아래 여성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矛盾性, 시대적 변천에 순응치 못했던 제도적 어려움을 풍자해 주고 있다.⁸⁰⁾

이상 세 類型으로 논술한 연암의 작품들은 그의 自序가 主題와 긴밀히 연관되고 있으며, 특히 閔翁傳 金神仙傳 虞裳傳에서 작자가 직접 작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馬駟傳의 <病心者> 閔翁傳의 <年長說話> 烈女咸陽朴氏傳의 <忍死符>처럼 插話를 통해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燕岩 短篇의 빼어난 技法이라 칭찬할 만하다.

이밖에 漢文小說로 작자 미상의 好色的 兩班 士流들의 치부의 일면을 풍자한 작품으로 烏有蘭傳이 있다. 주인공 李生은 金生이 평양감사로 부임하자 따라가 함께 지나게 되는데, 김

79) 燕岩集, 卷一, 煙湘閣選本, 烈女咸陽朴氏傳

80) 姜東雉, 朴燕岩의 文學觀에 대하여(우리文學研究 3집), pp. 83~94

생이 도덕군자언하는 이생을 평양기생 烏有蘭을 시켜 毀節시킨다는 내용이다. 전반에는 이생이 훼손당하고 후반은 암행어사가 된 이생이 평양감사 김생을 복수하는 이중구성으로 되어 있다. 오유란전에서는 심각한 이생의 사랑이 웃음으로 돌려지고 김생에 대한 복수도 오히려 웃음으로 처리된 滑稽美가 특색이라고 하겠는데, 연암의 전형적 풍자가 이조 말기의 작품 烏有蘭傳 裋裋將傳 李春風傳에 이르면서 차츰 滑稽 내지 諧謔化하는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⁸¹⁾

8. 傳記(傳)小說

人物을 주로 기술하는 것을 <傳>, 事跡을 주로 기술하는 것을 <記>라 한다. 고대의 三國遺事나 史記 列傳은 주로 人物傳說을 수용하였고, 그후 高麗史·東國輿地勝覽·朝鮮邑誌에는 孝子·烈女傳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漢文小說의 본격적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역대 文學人들의 個人文集 속에 나타난 <傳>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되거나 연구된 일이 없다.⁸²⁾ 필자가 조사한 作品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중 약 80%가 「人物傳」인 셈인데 實存人物도 많으나 虛構의 인물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傳記小說의 發達過程을 밝혀주고 있다. 이미 許筠(1569~1681)의 惺所覆瓿藁 傳(文部) 가운데는 嚴處士傳 蓀谷山人傳 南宮先生傳 蔣生傳 張山人傳 다섯 편의 전⁸³⁾이 있어 燕岩의 傳들과 좋은 對比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많은 問題들을提起해 주는 實學時代의 대표적 작가 몇 사람을 抽出하여 그들의 作品을 比較·檢討해 보려고 한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蔡濟恭 安鼎福 李德懋 金鑣 李鉦 丁若鏞 李瀼의 作品으로 제한하였다.

蔡濟恭(1720~1799)의 樊巖集에는 萬德傳 李忠伯傳 朴永緒傳 李節度傳 溪巖金先生傳 白義士傳 李進士傳 朴孝子傳 淸風義婦傳 朴進士傳 辛起金傳 白士良傳 受南傳 七分傳의 열두편이 있다.⁸⁴⁾ 이중 萬德傳은 濟州의 萬德이 早失父母하고 妓生이 되었다가 다시 良家로 돌아오나 결혼하지 않고 財産을 늘려 私財로 飢民을 救濟하고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줄거리다. 李忠伯傳은 樊岩의 논평을 보면 金漸이 지은 李忠伯傳을 改作한 것이다. 光海君代 大俠 李忠伯이 감사 朴燁의 愛妾을 사랑한 죄로 그 아버지가 고초를 겪게 되자 金漢豊과 힘을 겨뤄 이긴 보상으로 박업에 의해 되려 登用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도 거의

81) 金起東, 烏有蘭傳考 (국어국문학 20호), p. 196.

82) 李家源, 「李朝漢文小說選」, 民衆書館. 李佑成·林燮澤 「李朝漢文短篇集」一潮閣은 이런 側面에서 資料의 價値가 높게 평가된다.

83) 許筠의 惺所覆瓿藁는 詩·賦·文·說部로 나누고 文部는 序·記·傳·書·論·說·辯·解·雜文·讀·箴·銘·訟·養·誄·哀辭·祭文·行狀·碑·碣·墓誌銘·雜記·尺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拙稿, 許筠의 生涯와 文學(許筠의 生涯와 革新思想), 세문사, 1981, 참고.

84) 蔡濟恭, 樊岩集, 卷 55, 「傳」

實記의 성격을 띠고 있다.

安鼎福(1712~1791)은 조부 安瑞羽의 학풍을 이어받아 四大奇書의 논평으로도 유명하다. 順菴集「覆甌」에는 洪生遠遊記와 女容國傳이 눈을 끈다. 洪生遠遊記는 南炎浮洲志와 유사하다. 洪生은 紫烟島에 勝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이 凶基라는 만류를 무릅쓰고 집을 지었다가 죽어 저승(南關)에 가 놓고 돌아온 이야기다. 洪生은 이름이 重一로 南坡 洪宇遠의 再從孫이라 하였다.

女容國傳은 일명 孝莊皇帝粧臺紀功錄이라 하여 化粧道具를 의인화한 보기 드문 假傳作品이다. 女容國이 세워질 때 많은 衛星國이 孝莊皇帝(얼굴)의 奩臺(鏡臺) 일을 맡았는데 그중 銅丞 相 圓淸(동근경대)이 칙략자 垢裏公을 공격하여 梳快(빗)와 梳眞으로 上林苑(머리털)에 숨은 적을 소탕하고 灌井(輿淨)으로 수군을 독려하여 적을 소탕하고 女容國이 태평을 되찾는다. 즉 머리에 낀 때를 빗으로 빗기고 물로 씻어 경대에 비치는 얼굴 매무새를 바로 잡는 내용의 의인화이다.⁸⁵⁾

李德懋(1741~1793)는 세칭 당대 四檢書 중 하나로 그의 작품은 檢書體의 독특한 文體로 되어 있다. 管子虛傳 看書痴傳 兩烈女傳 慧女傳(嬰處文稿) 白胤耆傳 紅衣將軍傳 李氏三世忠孝傳 大朗慧傳 智證傳 慧昭傳 銀愛傳 金申夫婦傳(雅亭遺稿)이 있다.⁸⁶⁾

看書痴傳은 南山 아래 <책만 읽는 바보>(선비)의 이야기를 傳記化한 작품이며, 兩烈女傳은 李弘道의 아내 李氏와 조카딸이 모두 남편이 죽자 따라 죽어 烈女의 본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李夢陽(明)의 六烈女傳을 본뜬 작품이라 하였다. 白胤耆傳은 南海 孝子 白胤耆의 일생을 소설화한 작품이며, 紅衣將軍傳은 壬亂時의 名義將 郭再祐의 一代記를, 李氏三世忠孝錄은 진주의 李裕鍊과 그의 아들 世翰 尙化 부자의 孝義錄을 기술한 작품이다.

그리고 銀愛傳과 金申夫婦傳은 王命으로 지어 內閣日曆에 실은 작품으로, 전자는 康津縣의 金銀愛가 流言浪說로써 순결한 처녀를 모함하는 老妃를 살해했으나 王命으로 석방된 사실을, 후자는 노총각 金禧集과 노처녀 申氏의 婚事관계를 소설화하고 있다.

桐菴의 작품 중 創意가 뛰어난 작품으로는 管子虛傳이 있다.⁸⁷⁾ 管氏의 원래 성은 竹氏이며, 子虛는 孤竹君의 아들로 태어나 명망을 얻는다. 黃帝의 詔書를 받은 生成翁의 천거로 子虛는 보좌의 역을 다하다가 享年 60에 蠹心(벌레먹는 병)의 병으로 세상을 마치게 된다. 八兄弟의 아들과 고명딸을 두었는데 아들은 붓(筆) 화살(箭) 통소(簫) 제기(邊) 죽간(簡) 낚시대(竿) 지팡이(筇) 말(簾)이고 딸은 鄆春縣夫人(竹夫人)이며 나중에 生成翁은 管氏를 천거한 공로로 大司命이 된다.

85) 崔勝範, 女容國平亂記(池憲英先生華甲論叢), 1971, 참고.

86) 李德懋, 靑莊館全書, 第四卷, 嬰處文稿, <傳>. 刊本雅亭遺稿, 卷 3, <傳>

87) 管은 <대나무>, 子虛는 <虛無한 일>의 뜻으로, 여기서는 대나무를 의인화한 假傳作品이다. 註 29) 참고

金鑣(1770~1821)의 潭翁遺藁에는 索囊子傳 蔣生傳 韓淑媛傳 琉球王世子外傳 李安民傳 砲手李士龍傳 安黃中傳등이 전한다. 金鑣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인물은 모두 丐者이거나 異人이다. 索囊子傳의 삭낭자는 甄城의 비령뱅이로 평범 가운데서 뛰어난 것을 찾으려는 표본이 되어 있으며, 蔣生傳의 장생 역시 유랑하는 丐者로 現實社會에서 理想을 추구하는 典型의 人物이다.⁸⁸⁾

韓淑媛傳의 淑媛은 光海君 때의 宮女로 인조반정시 綾陽君(仁祖)의 군사를 거느린 申景禎에 발탁되어 仁列王后(韓氏)에게 「烈」의 후상을 받은 사실을 작품화하고 있다.

琉球王世子外傳은 연암의 熱河日記(避暑錄)에도 보이는데, 유구의 왕세자가 倭人에 사로잡힌 父王을 속하기 위해 보물을 싣고 濟州에 표착했다가 목사 李灑에게 잔인하게 죽은 實錄의 부연작품이다.

李鈺(1770경)의 文無子文鈔 梅花外史등에는 申啞傳 蔣奉事傳 張福善傳 成進士傳 沈生傳 捕虎妻傳 峽孝婦傳 崔生員傳 柳光億傳등 20여편이 수록되어 있다. 申啞傳의 申炭齋는 병어리 劔工으로 正義의 구현자, 蔣奉事傳의 절인 장봉사는 백성의 주림이 양반의 사치에 있다고 하였으며, 張福善傳의 福先은 庶民을 구제한 공으로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成進士傳의 希龍은 자신의 厚德으로 비령뱅이를 감동케 하고 捕虎妻傳에서는 숫장수의 아내로 호랑이를 잡는 지혜를 보여주며, 峽孝婦의 젊은 과부는 守節로 孝道하는 모범을 보여 주기도 한다. 崔生員傳의 무신론자 최생원은 巫覡行爲로 惑世誣民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柳光億傳의 光億은 國家考試의 악패를 풍자하기도 한다.

특히 南靈傳(梅花外史)과 却老先生傳(花石子文鈔)은 假傳體의 발전적 작품으로, 전자는 담배를 후자는 족집게를 의인화하고 있다. 남령전에서 南烟(담배)과 麴生(술) 가운데 택일하려면 南烟을 택한다는 愛烟의 변(花史氏評)과, 작로선생전에서 文無子가 南齊 때 王僧虔이 족집게를 의인화하여 却老先生이라 했다는 말을 딴 이 두편은 멀리 高麗假傳과 연결해 볼 때 작품의 우월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⁸⁹⁾

丁若鏞(1762~1836)의 작품으로는 竹帶先生傳 張天慵傳 曹神仙傳 鄭孝子傳 蒙叟傳 등을 들 수 있다. 竹帶先生傳(대표작)의 竹帶 李宗和는 樊巖 蔡濟恭의 문객으로 번암이 죽어 그의 벼슬을 추탈하려 하자 이에 분개하여 그들을 痛罵하다가 丹城縣으로 귀양가게 되는데, 茶山이 그 절개를 사 이 작품을 짓고 있다. 張天慵傳이나 曹神仙傳 역시 實存人物의 奇人奇談으로, 전자는 海西 簫客·환장이 天慵의 一生談이며, 후자는 孤兒·寡居를 찾아 다니며 책을 헐값으로 사 비싼 값으로 파는 책거간꾼 曹神仙의 俗態를 그리고 있다. 茶山の 黜僮文은 연암의

88) 許筠의 蔣生傳도 이와 倣似한데 稗史는 이를 가리키는 듯하며, 海東異蹟(洪萬宗)의 「蔣都令」도 蔣生과 同一人으로서 보인다.

89) 李鈺, 文無子文鈔·梅花外史(潭庭叢書), 任侑炅·李鈺의 「傳」研究(梨大大學院), 1981. 金均泰, 李鈺研究(서울大大學院), 1977.

양반전을 방불케 하는 작품으로, 옛 王褒의 僮約을 들어 오히려 그들의 관대함을 설득하고 있다. 그밖에 鄭孝子傳은 道康縣 鄭寬一 호자의 일생을, 蒙叟傳은 李獻吉의 일생을 그의 滑稽스런 필치로 형상화하였다.⁹⁰⁾

李瀾(1681~1763)의 星湖集에 보이는 20여편의 傳도 모두 당대의 불우한 인물들이 주인공인바, 특히 東方一士傳과 嘔笑先生傳은 짙은 寓言의 성격을 지녔다. 東方一士傳은 당대 志士들의 불우한 슬픔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嘔笑先生傳의 빈소는 비록 經世濟民의 학문을 지녔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다.

星湖集에는 瞎雞傳과 友雞傳 두편의 닭을 소재로 한 특이한 작품이 붙어 있는데, 전자는 애구눈을 가진 닭의 행위를 통해 養人의 道를 말하고 있으며, 後者는 母雞의 죽음을 통해 人間의 報恩을 흥미롭게 형상화하고 있다.⁹¹⁾

이상에서 보던 傳에 비친 人物들의 성격 유형은 대개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人物의 생애가 대개 비현실적이며 道仙思想에 윤색된 경우, 둘째, 실인물의 전기로 전형적 朱子主義의 典範이 되는 경우, 셋째, 卑賤한 신분이나 地位를 통해 現實 諷刺의 主役을 맡은 경우, 넷째, 假傳의 기술방법을 통해 의인화된 인물의 경우이다. 이 중 前二者의 경우는 딱딱한 〈人物傳〉으로서의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세번째 경우는 연암의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諷刺小說의 主役으로, 마지막 경우는 管子虛傳 女容國傳 南靈傳 却老先生傳 烏圓傳에서 보는 것처럼 생활주변의 소재를 중심으로 의인화의 새로운 技法이 개발되고 있다.⁹²⁾

Ⅲ. 結 論

지금까지 漢文小說의 系譜를 살피고 그 대표적 작품들을 類型別로 分類 분석해 왔다. 소설의 起源은 물론 說話나 詩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殊異傳 三國遺事 三國史記등에 전하는 설화나 破閑集 補閑集 白雲小說 樸翁稗說등에 전하는 稗官作品들이 소설문학의 길을 열어 주며, 太平廣記 剪燈新話 三國志衍義등 다양하게 수입된 中國文學 작품에서 자극을 받고 이가 근세의 太平閑話 於于野譚 靑丘野談 溪西野談등 諸俗文學에서 地盤을 굳혀 나가면서 점차 소설문학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본격적 漢文小說의 출발은 이른바 上代의 稗官文學을 잇는 假傳體에서부터다. 麴醇傳 孔子傳 麴先生傳 淸江使者玄夫傳 竹夫人傳 楮生傳 丁侍者傳이 대표적 가전으로, 이들은 주로 生活 周邊에서 取材하여 上政을 諷刺하고 戒世懲人하는 敎訓的 功利的 의도에서 제작된 擬人化的

90) 丁若鏞, 丁茶山全書(上) 一集 詩文集「傳」

91) 李瀾, 星湖先生文集「雜傳」

92) 高麗假傳은 武臣亂 이후 失意에 찬 文人들 心境을 寓言化하기에 응이했으나 朝鮮朝 後期の 假傳들은 그러한 의도보다 表現의 美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文學이었다. 이러한 創作의 技法은 王朝의 變혁과 더불어 상당한 空白期間을 지난 후 朝鮮朝에와 본격적 擬人小說의 꽃을 피운다. 植物의 의인화인 花史 抱節君傳, 心性의 의인화인 愁城誌 天君演義 天君本記, 동물의 의인화인 鼠大州傳 鼠獄記 蛙蛇獄案등 대체로 三分類된 이들 의인작품들은 麗代 假傳의 영향으로 史記의 筆法을 모방하고 있으나, 시대 반영의 양상이나 의인의 대상물이나 구성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훨씬 寫實的인 세련미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더우기 心性의 의인화는 小說技法의 系脈을 개발하여 독보적 장르로서의 발전성을 과시하고 있다. 傳奇體小說은 특히 중국문학의 강한 자극으로 형성되는데, 非現實的 空想的 사건을 통해 작자와 現實의 葛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나중 夢遊系작품의 출현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代表作으로 金鰲新話 유편들이 있으나 剪燈新話와 比較해 볼 때 脫中華의 自意識이 두드러진다. 그밖에 王郎返魂傳 金牛太子傳 安樂國太子傳등은 勸念要錄 地修行錄등 부분적 佛典의 번역과정을 통해 단편화한 전기의 예로, 漢文短篇이 한글소설로 移行된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준다. 艷情·道德小說은 아무래도 素材面에서 소설문학의 근원적·본격적 장르로 대부분이 한글소설이다. 한문소설 周生傳 雲英傳은 강한 전기적 영향의 작품들이며 淑香傳 再生緣은 思想面에서, 三韓拾遺나 六美堂記는 創意와 自主性이 의식되고 씌어진 본격적 작품들이다. 특히 道德小說의 대표작 彰善感義錄은 수십편에 달하는 忠孝錄 내지 孝行錄類의 발달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歷史·軍談小說로는 실제 역사적 사건·영웅을 소설화한 壬辰錄 林慶業傳 崔孤雲傳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兩亂 후 英雄 待望의 民衆意識을 표출한 것이 아니면 實傳을 중심으로 역사의식을 고취한 작품들이다. 또 창작 군담의 유행과 더불어 南洪量傳 雲香傳등 지식층에 의해 架空的 영웅소설들이 한문으로 창작되어 독자층을 형성한 것도 알 수 있다. 諷刺小說은 封建王朝의 몰락과 더불어 內的 모순성이 사회에 고발된 實學時代에와 급진적 발달을 가져온다. 本稿에서는 諷刺小說의 巨匠 燕岩 朴趾源의 작품을 성격 중심으로 분류, 許生·虎叱에서 보듯이 士大夫 주인공을 통한 下向諷刺, 馬駟傳 穢德先生傳 廣文者傳 閔翁傳 金神仙傳 虞裳傳처럼 賤層 主人公을 통한 上向諷刺, 烈女咸陽朴氏傳처럼 烈婦를 통한 社會制度의 풍자등으로 三分類하여 각각 작품 속에 나타난 諷刺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였다.

끝으로 文集〈傳〉의 연구는 본 연구의 중요 목적의 하나였다. 許筠에서 燕岩에 이르는〈傳〉의 通時的 연계성은 아직 과제로 남겨둔 채, 該論에서는 實學時代를 중심으로 대표적 작가 蔡濟恭·安鼎福·李德懋·金龜·李鈺·丁若鏞·李瀾의 일곱 사람에 국한시켜 그들의〈傳〉이 實存人物에서 차츰 虛構化하는 과정을 통해 소설발달의 몇 단계적 계기를 분석 검토하였다.

이들〈傳〉은 구성상으로 소설 발달의 轉機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 實在의 人物에서 虛構의 인물로 移行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 短片的 挿入說話를 통해 표현의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 〈傳〉의 인식을 계기로 소설에 대한 독자의 인식이 차츰 肯定化하고 있다는

점, 작품의 풍자성이 實學의 주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傳〉이 차지하는 文學史的 位置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다.

漢文小說의 系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의 相關關係가 소상히 밝혀져야 하겠으나 지면상 이 작업은 別稿로 미루고, 本稿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假傳體, 傳奇體, 擬人體, 艷情・道德類, 歷史・軍談類, 諷刺, 傳記小說로 七分類하여 이들의 史的 系譜를 밝히고 特徵的 事實을 개괄 논술함으로써 大團圓을 삼는다.